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주도 중학생들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한 석 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이 광 용

1999년 8월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주도 중학생들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한 석 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이 광 용

1999년 8월

제주도 중학생들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한 석 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1999년 6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제출자 이 광 용

이광용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1999년 7월 일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 초 록 〉

제주도 중학생들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이 광 용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지도교수 한 석 지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중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을 조사 연구해 봄으로써 앞으로 학생들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교육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학교 전인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공동체의식의 개념정의와 기존 연구를 분석하여 제주도 중학생들의 의식구조를 내용차원에서 제주인의 가치관, 심리적 동일성, 협동성 영역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이에 따라 나타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들의 가치관면에서 보면 제주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정신으로 37.0%의 학생들이 '강한 생활력'을, 다음으로는 '부지런하다' (23.2%), '검소하다'(2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되는 것으로 '변화에 보수적이다'라고 한 학생이 36.6%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들이 생각하는 인생목표로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70.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는 정보(22.5%)나 이웃(6.6%)보다는 가족(62.3%)을 들고 있었다. 사회적 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 실력(62.0%)을 첫째로 꼽고 있었으며, 제주사람들의 마음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로는 돌하르방(32.5%), 삼무정신(31.83%), 즙낭정신(28.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은 저학년일 수록 높게 나타났다.

심리적 동일성의 면에서 보면, 상당수의 학생들(64.8%)이 제주인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으며, 제주사투리의 사용빈도와 축구경기에서 보면, 학생들의 소속감 및 일

체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학교 학생들에 대하여 한가족이라는 느낌이 드느냐는 질문에는 40.9%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또한 외지인에 대한 거리감은 76.6%가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협동성의 차원에서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63.4%)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학급 청소 활동에 대한 협동성과 참여도는 저소득층(월 50만원 미만) 학생이 보다 긍정적인 응답(74.2%)을 보이고 있다. 친구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상부상조 태도는 여학생(70.7%)이 남학생(62.2%)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급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남학생(38.2%)보다는 여학생(46.5%)이, 읍·면지역(33.6%)보다는 시 지역학생(47.4%)이 비교적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79.1%)은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있었고, 학년별로는 2학년이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공중도덕은 대졸 보호자의 학생이 67.5%로 가장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보전 의식은 여학생(71.6%)이 남학생(64.9%)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도내 중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성별로는 여학생이 더 안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나 소속 학교에 대한 일체감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 및 준법정신이 높지 않게 나타난 것은 학교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도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지역화 학습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계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이 개인적 성취감을 맛보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려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민주적 절차에 따른 책임성과 준법 정신의 내면화 교육이 필요하며, 또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일제 특별활동이나 특기·적성교육에서도 학생들에게 학급협의회, 자원봉사, 진정, 캠페인 등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넷째, 중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낮게 나타난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 목 차

I. 서 론 .....	1
II. 이론적 배경 .....	5
1. 공동체 .....	5
2. 공동체의식 .....	8
III. 연구 방법 .....	11
1. 조사 도구 .....	11
2. 조사 대상 .....	12
3. 자료 처리 .....	13
IV. 연구 결과와 논의 .....	15
1. 가치관 .....	15
2. 심리적 동일성 .....	29
3. 협동성 .....	38
IV. 결 론 .....	54
참고문헌 .....	57
영문초록 .....	59
< 부 록 > .....	62

## 표 목 차

〈표 1〉 조사도구의 구성 영역 및 문항수 .....	11
〈표 2〉 지역별 질문지 실시 대상자 및 회수 현황 .....	12
〈표 3〉 배경변인별 자료처리 인원 .....	13
〈표 4〉 제주사람들이 자랑할만한 정신 .....	17
〈표 5〉 학생들이 생각하는 제주인의 단점 .....	18
〈표 6〉 인생 목표 .....	20
〈표 7〉 미래사회의 중요한 자원 .....	22
〈표 8〉 사회적 성공요인 .....	24
〈표 9〉 제주사람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전통문화 .....	27
〈표 10〉 제주도의 역사와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 .....	28
〈표 11〉 제주 사람이라고 느끼는 정도 .....	30
〈표 12〉 제주 방언의 사용 빈도 .....	32
〈표 13〉 제주 사람들이 선호하는 응원팀 .....	33
〈표 14〉 일체감의 정도 .....	35
〈표 15〉 제주 사람들이 외지인에 대한 거리감 .....	37
〈표 16〉 협동심의 정도 .....	39
〈표 17〉 학급 청소 활동 참여도 .....	41
〈표 18〉 노트 대여 정도 .....	43
〈표 19〉 친구에 대한 도움 정도 .....	44
〈표 20〉 학급협의회의 준수 정도 .....	47
〈표 21〉 자원봉사 활동 경험 .....	50
〈표 22〉 공중 도덕 준수 .....	51
〈표 23〉 환경보전 의식 .....	53

# I. 서 론

우리 나라는 급속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경제적 발전은 크게 이루었으나 종래의 농촌공동체 혹은 생활공동체가 해체되는 등 그 역기능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사회구조 속에서 소위 익명성의 문제, 사회적 무책임성, 적당주의 등이 빈발하고 있다. 그리하여 집단이기주의 혹은 지역이기주의란 말이 나올 정도로 오늘날 사회 분위기는 변모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집단이기주의(group egoism)는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나 집단의 체면내지 이익만이 관심의 대상이 될 뿐이고 개인의 존엄성이나 사리의 정당성의 여부는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sup>1)</sup>

또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핵가족화 현상을 야기하여 가정이 맡고 있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었으며, 특히 최근 급증하는 부모들의 이혼은 자녀들의 정서 발달과 가치관 형성에 심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며 탈선의 계기가 되는 수가 많다.

특히 성적 지상주의, 경쟁 위주의 학교 생활, 학부모의 이기주의, 과도한 사교육비, 명문대 진학의 일류병, 학벌 중심 풍토 등의 문제들은 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하면서도 자신이 학부모가 되면 어쩔수 없이 되풀이해야 하는 것이 숙명적인 우리 교육의 현실이기도 하다.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엄청난 교육열은 바람직한 인간 성장과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남’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추구하는 비사회적, 비도덕적 인간만을 양산해 내고 있다.<sup>2)</sup>

제주도는 최근 급속히 진행되는 도시화와 대중매체의 보급으로 인하여 소

---

1) 최재석(1980),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개문사, p.185.

2) 주성민(1998), “온 사회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문화”, 「교육월보」, 통권200호, 한국교육개발원, p.64.



비 향락 문화의 범람, 비행 청소년의 증가 등 비교육적인 환경이 늘어가고 있으며, 물질만능주의, 준법 정신 및 책임 의식의 결여, 자기만을 생각하는 극단적 이기주의, 전통적 협동정신의 쇠퇴, 인간성 상실과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생활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우리 나라의 학교교육현장은 학생들의 참을성 부족, 하기 싫은 일만 안 해도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적 사고방식, 가정교육의 소홀, 사회 전반의 가치관 붕괴, 획일적인 교육제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 현상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이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간성 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개인의 존엄성과 사리의 정당성에 근거한 공정한 판단이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길임을 깨닫고 비판적인 안목으로 나와 함께 우리를 생각하는 '제주공동체'를 바라보아야 할 때다.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언제나 가족,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다. 학교 교육을 통해 인격 도야, 능력의 계발은 물론 함께 살아갈 자질을 길러 주어야 한다. 개인 생활도 중요하지만 공동 생활을 통해 책임감, 인내심, 협동심, 극기심과 함께 페어 플레이 정신을 함양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개인 중심의 이기적인 시민사회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의 한 사람임을 똑똑히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sup>3)</sup>

최근 교육부에서 마련한 '교육비전 2002' : 「새학교 문화 창조」란 개념은 사람에 따라 달리 정의할 수 있겠으나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이제까지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여 학교교육을 왜곡시켜 온 입시위주·교사중심의 수업 관행을 개선하여 학생이 자신의 학업 성취 수준과 학습 속도에 맞춰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여 기초 학력이 충실해지고,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키우며,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 의식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와주며, 이를 가능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학교 안팎에서 일상화되도록 노력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sup>4)</sup>

---

3) 김대환(1994), 「한국인의 자기 발견」, 김영사, pp.127~186.

4) 고원영(1998), “새 학교 문화 창조의 의미”, 「교육개발」, 통권 200호, pp.26~27.

교육은 사람들간의 관계로서 형성된 공동체인 사회를 계속 유지시키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은 기존 사회의 문화 형성이나 변형 과정에 관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이나 일체감을 갖도록 하는 데 관심을 둔다.

어떤 사회에서든 그 구성원인 개인이 강한 일체감이나 소속 의식을 갖지 못할 때 그 사회는 공동체로서의 결속력을 가질 수 없으며 개인의 삶을 위한 안정된 사회 환경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교육의 중요성은 한층 더 커지게 된다.<sup>5)</sup>

허친스(R. M. Hutchines)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교육은 곧 인간 교육(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전인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의 목표가 전인교육이고, 전인교육의 도달점이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데 있다면 오늘날 학교에서의 인간성 교육은 모든 학생이 각자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고 한 인격체로서 대접받으면서 바람직한 인성계발 기회를 가지며 올바른 가치관 교육을 통해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sup>6)</sup>

그러므로 앞으로의 학교 문화는 첫째, 교육적인 학교의 분위기이며 도덕적인 학교의 정신으로 충만해야 한다. 아이들을 믿어 줌으로써 아이들의 자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는 진정한 교육은 많은 시간과 노력과 교사의 능력 그리고 학교와 지역 사회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학교가 진정한 공동체이기를 기대한다. 학교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무슨 집단주의나 공동생활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개개인이 존중됨으로써 타인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학습하고 개인과 개인을 싸고 있는 사회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학교이길 바란다는 의미이다. 학교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함께 한다’는 학교의 분위기가 중요할 것이다.

---

5) 신정현 외(1994), 「통일시대의 민주시민교육론」, 탐구당, pp.11~13.

6) 노상준(1997), “인간의 본성을 바람직하게 키워주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련의 교육”, 「교육제주」 87호, 제주도교육청, pp.20~21.

즉 학교가 나 아닌 타인, 그리고 사회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관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의식을 체득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즉 학교 현장이 진정으로 개개인이 존중됨으로써 타인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학습하고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sup>7)</sup>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중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을 조사 연구해 봄으로써 앞으로 학생들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학교 전인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우선 공동체의 개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공동체의식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보았다. III장에서는 연구 방법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하였으며, IV장에서는 연구 자료를 가지고 영역별·배경 변인별로 공동체의식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V장에서는 I장에서 IV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여 결론을 내려 보았다.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공동체의식이란 포괄적인 개념이나 본 연구에서는 제주인으로서 가지는 가치관과 심리적 동일성과 협동성 등에 한정하였으며 둘째, 제주도 전체학생에 대한 표본 추출이 아니라 일부 중학교 학생의 의식조사에 국한시켰다는 점 등이다.

---

7) 김정금(1998), “학교가 아이들의 힘을 믿어주는 공동체였으면 한다”, 「교육개발」, 통권116호, 한국교육개발원, pp. 40~41.

## II. 이론적 배경

### 1. 공동체

공동체란 개념은 때로는 가족이고 때로는 마을이며, 또는 민족이 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는 모든 인류가 반드시 경험하였고,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사회생활의 한 양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sup>8)</sup>

가장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의미의 공동체는 모두 19세기와 20세기초의 퇴니스(F. Tönnies)의 이익사회(Gemeinschaft), 에밀 뒤르껼(E. Durkheim)의 연대감(Solidarity), 그리고 쿠올리(C. H. Cooley)의 1차적 집단(Primary Group)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9)</sup>

공동체를 이론적인 차원에서 최초로 연구했던 퇴니스(F. Tönnies)의 「이익사회와 공동사회」(Gemeinschaft and Gesellschaft)는 공동체와 결사체를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결사체는 인간의 이익을 목적으로 구성된 것이지만 공동체는 혈통 및 지역성과 관습 등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일정한 생각과 행동방식을 보여주는 유기체적인 조직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맥키버(R. M. MacIver)는 「공동체」(Community)에서 공동체를 이익에 의해서 특정 지역의 구성원들의 공유하게 되는 감정의 동일체라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선한 것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공공선과 같다.

공동체란 주민들이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살며, 서로에 대해 친밀하고 소속감

---

8) 김영섭 외(1994), “공동체의식과 시민운동”, 「아산재단 연구보고서」, 제3집,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p.11.

9) 송복(1995), 「세계화 전략으로서의 공동체 재건」, 공보처, P.35.

과 연대 의식(we-ness)을 갖고 있는 사회를 말한다. 이러한 공동체에서는 따뜻함, 보살핌, 가치의 공유, 도덕적 책임, 사회적 일치와 연대, 시간과 공간의 연속성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공동체란 타인과 일체가 되어 협동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심성적·정신적 현상과 관계를 가르키는 개념으로서 대중사회에 대비된다. 즉, 공동체는 집단에 대하여 깊은 소속감을 가지며(동일시), 다른 사람들과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감정과 함께 더불어 일체감을 갖는다(정신적 통일성), 그리고 여러 집단에 의미있게 참여할 필요성을 가지며(관여), 서로 상대방의 본질적 중요성과 가치가 있는 전인적 인간으로 대한다(총체성)

듀플러(M. L. Deffuer)는 공동체를 어느 특정 지역에 함께 살면서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결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집합으로, 윌슨(A. W. Wilson)과 슐츠(D. A. Schulz)는 공동의 이해와 함께 일차적으로 장기적 상호작용의 역사를 가졌다고 생각되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니스벳(R. A. Nisbet)은 가장 기초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회학적 단위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sup>10)</sup>

공동체(Community)란 한 지역적 테두리에 같이 모여 사회조직을 이룩하고 문화를 공유하며, 그 공동체에 대한 일체감(The sense of identity)을 지니는 삶의 터전이다.<sup>11)</sup>

공동체는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종교나 문화, 혈연 등을 바탕으로 동일한 이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공통된 생활양식과 의식의 공감성을 중심으로 서로 간에 운명적인 연대의식을 느끼게 해주는 모듬체를 의미한다.<sup>12)</sup>

요컨대 공동체는 도덕적·정신적 현상으로서 자신의 집단에 대한 정체감과 일체감, 집단 성원들의 참여 의식과 총체성을 함축하는 것이다.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과 의미있는 관련을 맺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공동체 의식은 그 본질

---

10) 양 춘 외(1991), 「사회학개론」, 진성사, p.79.

11) 김경동(1981),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P.171.

12) 진덕규(1993), 「현대정치학」, 학문과 사상사, pp.13~14.

이 된다.<sup>13)</sup>

사회학적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공동체는 그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으로 인해 포괄적으로 이해되는 반면, 특정 사회나 지역에서 이의 실현을 모색할 경우 그 정의와 가치를 규명하기 힘들다.

이같이 다양하고 추상적인 공동체 개념에 대하여 조지 힐러리(George A. Hillery)는 공동체에 관한 94개의 다양한 정의를 재분류하면서 하나로 일치되는 개념을 찾아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들 다양한 공동체 개념을 다음과 같이 범주화할 수는 있다.

첫째, ‘同質性을 가진 소집단’으로 개념화 : 마이나(D. W. Minar), 그리어(S. Greer) 등.

이들은 종교공동체 · 학문공동체 · 시인공동체 · 군사공동체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他人과 일체가 되어 협동관계를 맺고자 하는 심성적, 정신적 현상과 관계’로 개념화 : 맥키버(R. MacIver), 니스벳(R. A. Nisbet), 브라운 웰(B. Brownwell) 등.

이들은 심성적 공동체와 대중사회를 대조적으로 보고 공동체는 일체감, 심성적 통일, 자발성, 전체성이 특징인 반면 대중사회에서는 소외, 심성적 단절, 비참여, 분절화가 특징이라고 비교 · 분석한다.

셋째, ‘지역과 결부된 조직체의 단위’로 개념화 : 포플린(D. E. Poplin), 썬스맨(M. B. Susman) 등.

이들은 인간이 공간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 심리적 욕구충족이 근린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형성된다고 본다. 따라서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공간적 단위로서 특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간주된다.<sup>14)</sup> 이상의 각기 다른 초점을 갖는 공동체 개념의 규정들도 그 저변에는 공통점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공통점을 종합하여 松原治郎 교수는 공

---

13) 신형철(1997), “ 공동체를 추구하는 뜻은 . . . ”, 「제주공동체」, 제2집, 공동체의 식개혁 국민운동 제주도협의회, p.42.

14) 김영섭 외(1994), 전개서, pp.17~18.

동체를 생활의 장(場)에 있어서 시민으로서의 자주성과 책임성을 자각한 개인 및 가정을 구성주체로 하여, 지역과 각종의 공동목표를 갖는 개방적이고도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성이 있는 집단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sup>15)</sup>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스피노자(Baruch, Spinoza)가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을 억압하거나 지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이성에 의해 살 수 있게 하고 또 그것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은 공동체 생활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고 보다 더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sup>16)</sup>

본 연구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공동체를 단순히 지역이나 집단적인 개념이 아닌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써, 공동의 문화를 가진 시민으로서 공동선을 창조하고 공통적인 가치를 위하여 일체감을 가지고 협동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집단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2. 공동체의식

일반적으로 공동체의식은 연구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공동체의 경우처럼 명확한 정점으로써 규정되어 있지 않는다. 공동체의식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국내의 연구들은 시민들이 가지는 정서적 태도의 하나로써 커뮤니티의식, 동료의식, 방계의식, 영역의식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국외의 연구들은 좀 더 세분화된 경향을 보이는데 셔틀즈(Shuttles)는 주민의 주거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심이 공동체의식 형성의 기본 전제가 된다고 하였다.<sup>17)</sup>

맥키버(R. M. MacIver)는 공동체의 특징으로서 지역성(Locality)과 공동체

---

15) 김영섭 외(1994), 상계서, p.18.

16) 신정현 외(1994), 전계서, pp.317~318.

17) 박경구(1994), “공동주택단지의 주민공동체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p.7.

의식(Community sentiment) 등을 지적하면서 공동체의식의 구성 요소로서 다음 세 가지를 들고 있다.<sup>18)</sup>

첫째, ‘우리’ 의식(we-feeling)

‘우리’ 의식이란 공동적 이해관심사를 가지고 집단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면 어디에서나 생겨나는 것이지만 그 이해관심사가 지역사회, 지역생활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더욱 명확한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지역이란 농촌의 경우는 자연부락, 도시의 경우는 근린생활권을 말한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어떠한 의식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의식이란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점차로 그 사회와 구성원이 동일체의식(sense of identity)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의식을 ‘우리’ 의식이라고 말한다.

둘째, 역할 의식(role-feeling)

이는 가치 또는 지분의 의식을 말한다. 즉, 공동체 구성원은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현상에서 말아야 할 각자의 대공동체적 기능 및 역할이 본질적으로 부여된다고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역할 의식은 일상 생활의 습관이나 가르침이라는 사회화과정 속에서 형성된다.

셋째, 의존 의식(defendency-feeling)

공동체에 의하여 충족되는 구성원들 사이의 물질적 욕망은 우선 물질에의 의존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으로 개인과의 심리적 의존이 생겨난다. 현대 생활에서 초래되는 고독으로부터의 탈피장소가 될 수 있다.

리프만(w. Lippmann)은 공동체 의식을 주거지역에 대한 주민의 심리적인 동료의식, 소속감, 그리고 주거지역의 장소성과 관련지어 논하면서, 첫째 한정된 규모와 인구, 둘째 주거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특성에 의한 지역의 독자성, 셋째 지역내에서의 빈번한 사회적 교류, 넷째 공동 이익이나 공동가치의 추구에 대한 집단적 인식 등의 네 가지 요인이 수반되어야 공동체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맥밀리언(McMillan)과 쇼비스(Chavis)의 정의는 좀더 포괄적인데, 이들은 공동체의식을 이웃간에 서로를 중요하게 여기며 서로간의 필요한 것들을 함께

---

18) 김영섭 외(1994), 전계서, p.19.



함으로써 이를 수 있다는 공유된 믿음을 정서로 정의하며, 소속감·상호간의 영향·가치의 공유·정서적 연계 등의 네 가지 원리로써 공동체의식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sup>19)</sup>

공동체 의식은 개인의 창조적 사유를 전제로 하지만, 이는 개인의 이기주의적 자유가 아니라 사회의 공익을 추구할 자유임과 동시에 과거의 역사를 반성하고 미래의 차세대에게 이익을 주는 역사적 자유인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은 개인의 이기주의적, 전통적 공동체 의식이 아니라, 프롬(Erich Fromm)이 말하는, 독립적이면서도 상호간에 인간성을 존중하며 상부 상조하여 그 생활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즉 인간 관계에 있어서 합리적 협동 관계의 추진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sup>20)</sup>

산업사회 속에서의 개별화, 원자화되는 개인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결속하게 하는 데 필요한 가치, 태도, 신념이 공동체 의식이다. 나아가 민주 사회에서 주민들이 공동의 문제를 내 일처럼 인식하고, 기꺼이 문제 해결에 동참하려는 ‘우리 의식’이다. 다시 말해 공동체의식이란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연대 의식에 기초하여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의 해결에 함께 참여하는 의식을 말한다.<sup>21)</sup>

따라서 여기에서 위와 같은 기존의 정의들을 종합하여, 공동체의식을 자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주체적인 시민으로서 가지는 가치관, 공동체에 대한 심리적 동일성,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협동성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서 사용된 가치관이라는 용어는 어떤 것을 얼마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며, 심리적 동일성은 제주인 이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를 말하며, 협동성은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상부상조 정신, 봉사정신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쓰였다.

---

19) 박경구(1994), 전계 논문, pp.5~8.

20) 조문부(1996), “의식개혁과 공동체 의식”, 「제주 공동체」, 창간호, 공동체의식 개혁국민운동제주도협의회, p. 30.

21) 공보처(1997), 「민주 공동체 시민 운동의 새로운 지평」, p.120.

### Ⅲ. 연구 방법

#### 1. 조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 도구는 질문지로서, 이 질문지에 나온 문항들은 공동체의식에 관해 국내에서 행해진 선행 연구의 문항들 중 앞서 논의한 개념정의와 본 연구의 목적 달성에 적합하도록 재편집하여 보완·작성하였다.<sup>22)</sup>

질문지 유형의 문항은 선택형을 중심으로 하고 부합되는 내용이 없을 때는 기타 사항에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질문지의 영역별 내용과 문항수는 <표1>에 제시된 바와 같이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배경 조사 문항 7개를 포함 모두 2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1> 조사도구의 구성영역 및 문항수

영역	내용	문항수
가치관	제주인이 자랑할 만한 정신, 인생 목표, 미래 사회의 중요한 자원, 사회적 성공 요인, 제주인의 마음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	7
심리적 동일성	제주인이라는 느낌, 방언의 사용 빈도, 소속감 및 일체감의 정도, 친근감,	5
협동성	협동심 및 참여도, 상부 상조 정신, 친구에 대한 도움, 준법 정신, 봉사 정신, 환경 보전 의식,	8
계		20

22) 광복 50주년 한민족공동체 의식 조사연구(1995), 「공보처」, pp. 483~496.

김향원 외(1997), “제주인의 의식 및 제주정신의 정립”, 「동아시아연구논총」, 제7집, pp.116~197.

## 2. 조사대상 및 실시

연구 대상은 제주도 중학생들의 모집단을 현실적으로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1개교로 하여, 제주시 2개교, 서귀포시 2개교, 북제주·남제주 지역에서 각각 1개교를 선정하였으며, 각 학교별로는 한 학년에 1학년씩 3개 학급을 선정하여 총계 18학급 약 660명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표2〉 지역별 질문지 실시 대상자 및 회수 현황

지역	구분 성별	실시대상자수		회 수		회수율(%)
		남	여	남	여	
제주시		110	110	93	102	88.6
서귀포시		110	110	98	100	90.0
북제주·남제주		110	110	101	102	92.3
계		330	330	292	304	90.3

표집은 1998년 12월 3일부터 12월 10일 사이에 실시 회수하였으며 질문지 실시 방법은 선정된 중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각 학교 사회과 교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한 후 회수하였다.

질문지의 조사 결과는 〈표2〉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회수율은 총 660부를 배부하여 596부를 회수(90.3%)하였다. 표집된 596부 중 질문지의 문항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은 것과 한 문항에 둘 이상 선택한 것을 통계에서 제외하고 (156명) 실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표집 수는 440명이었다. 따라서 최종적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표집의 배경변인별 수는 〈표3〉에 제시된 것과 같다.

〈표3〉 배경변인별 자료처리 인원

배경 변인	변인 구분	변인 크기(명)	변인구성비(%)	계
성별	남	225	225	440
	여	215	215	
거주지별	시 지역	279	279	440
	읍·면 지역	161	161	
학년별	1학년	133	133	440
	2학년	168	168	
	3학년	139	139	
부의 고향	제주도	320	320	440
	제주도 이외지역	120	120	
부의 가계소득	50만원 미만	58	58	440
	50만원 ~ 99만원	90	90	
	100만원 ~ 149만원	149	149	
	150만원 ~ 199만원	80	80	
	200만원 이상	63	63	
부의 교육수준	대 졸	89	89	440
	고 졸	247	247	
	중 졸	71	71	
	국 졸	33	33	
부의 직업	농·어·목축업	122	122	440
	자영업	79	79	
	판매서비스직	116	116	
	공무원·교사	68	68	
	기타	55	55	

### 3. 자료 처리

본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coding) 작업을 거친후 SPSS/PC<sup>+</sup>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를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전체와 배경 변인별로 문항별 집계를 하고, 이를 백분비로 산출하여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경향을 살펴보았다. 배경 변인별 분석은 성별, 거주지별, 학년별, 부의 소득수준별, 부의 교육정도별, 보호자 직업별로 구분하였다. 배경 변인별 각 집단간의 차에 대한 유의도검증은 본 설문지 항

목 대부분이 서열변인보다는 명명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것에 적절한 통계적 방법인 카이제곱( $\chi^2$ ) 검증법을 사용하였다. 유의도 수준은  $P < .001$ ,  $P < .01$ ,  $P < .05$  에서 살펴보았다.

## IV. 연구 결과와 논의

### 1. 가치관에 대한 논의

제주인의 가치관에 대한 제주도 중학생들의 의식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제주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정신, 인생 목표, 미래 사회의 중요한 자원, 사회적 성공 요인, 제주인의 마음을 상징하는 전통 문화,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을 설정하였다.

#### 1) 제주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정신

그 동안 양적인 경제 성장에 떠밀려 훼손되고 묻혀졌던 제주 고유의 자랑스런 정신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작업을 통해 제주사람들의 공동체적인 삶의 자세는 그 생명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 제주도 사람들이 다른 지방의 사람들에게 자랑할만한 가장 바람직한 정신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생활력이 강하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37.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부지런하다 (23.2 %), 검소하다(2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인 도민의식조사 보고서<sup>23)</sup>에서는 “제주인의 21세기 시대정신으로 대표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정신”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존녕정신(40.5%), 삼무정신(24.0%) 순으로 응답을 한 것과 “제주인의 의식 및 제주정신의 정립”

---

23) 21세기 제주 제주인 도민의식조사 보고서(1997), 제주발전연구원, p.29.

에서 조사<sup>24)</sup>된 결과에서는, 제주도 사람은 생활력이 강하며, 검소하다고 응답자들이 응답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중학생이든 도민이든지 간에 강한 생활력과 자양정신을 제주인의 바람직한 정신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성별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학생이 “생활력이 강하다”에 46.0%가, 남학생은 28.4%가 응답했고, “검소하다”에는 남학생이 31.6%가, 여학생은 14.0%가 응답했다.

또한 거주지역별로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지역 학생들은 “생활력이 강하다“에 37.6%가, 읍·면 지역 학생들은 36.0%가 응답을 했고, “부지런하다“에는 읍·면 지역 학생들이 31.7%가, 시지역 학생들은 18.3%가 응답을 했다. 그러나 학년별로는 “생활력이 강하다“에 응답한 학생이 2학년이 42.3%, 3학년은 34.5%, 1학년은 33.1%를 보여 2학년이 의외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검소하다“에 1학년은 27.1%, 2학년은 21.4%, 3학년은 23.0%의 응답을 보였다.

## 2) 학생들이 생각하는 제주인의 단점

학생들이 생각하는 제주사람들의 단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주도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변화에 보수적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36.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무뚝뚝하다’ (28.6%), ‘이기적이다’(1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학년별로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학년 학생은 “변화에 보수적이다”에 응답한 학생이 39.6%가, 2학년은 36.9%가, 1학년은 33.1%를 보여 고학년일수록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

24) 김향원 외(1997), 전개 논문, p.171.

〈표4〉 제주 사람들이 자랑할만한 정신

단위 : 명(%)

		부지런함	검소함	예의바름	생활력 강함	기 타	계	d.f	$\chi^2$
성별	남	47 (20.9)	71 (31.6)	27 (12.0)	64 (28.4)	16 (7.1)	225 (100.0)	4	31.757 ***
	여	55 (25.6)	30 (14.0)	11 (5.1)	99 (46.0)	20 (9.3)	215 (100.0)		
거주지역	시	51 (18.3)	68 (24.4)	28 (10.0)	105 (37.6)	27 (9.7)	279 (100.0)	4	12.458 *
	읍·면	51 (31.7)	33 (20.5)	10 (6.2)	58 (36.0)	9 (5.6)	161 (100.0)		
학년	1학년	36 (27.1)	36 (27.1)	11 (8.3)	44 (33.1)	6 (4.5)	133 (100.0)	8	11.257
	2학년	34 (20.2)	36 (21.4)	15 (8.9)	71 (42.3)	12 (7.1)	168 (100.0)		
	3학년	32 (23.0)	29 (20.9)	12 (8.6)	48 (34.5)	18 (12.9)	139 (100.0)		
부의고향	제주	77 (24.1)	76 (23.8)	28 (8.8)	115 (35.9)	24 (7.5)	320 (100.0)	4	1.789
	제주의외	25 (20.8)	25 (20.8)	10 (8.3)	48 (40.0)	12 (10.0)	120 (100.0)		
가계소득	50만원미만	12 (20.7)	12 (20.7)	6 (10.3)	24 (41.4)	4 (6.9)	58 (100.0)	16	15.477
	50만~99만원	25 (27.8)	14 (15.6)	11 (12.2)	32 (35.6)	8 (8.9)	90 (100.0)		
	100만~149만원	38 (25.5)	39 (26.2)	12 (8.1)	50 (33.6)	10 (6.7)	149 (100.0)		
	150만~199만원	14 (17.5)	19 (23.8)	5 (6.3)	37 (46.3)	5 (6.3)	80 (100.0)		
	200만원이상	13 (20.6)	17 (27.0)	4 (6.3)	20 (31.7)	9 (14.3)	63 (100.0)		
보호자교육정도	대출	12 (13.5)	22 (24.7)	7 (7.9)	40 (44.9)	8 (9.0)	89 (100.0)	12	12.957
	고졸	61 (24.7)	57 (23.1)	20 (8.1)	88 (35.6)	21 (8.5)	247 (100.0)		
	중졸	22 (31.0)	16 (22.5)	8 (11.3)	19 (26.8)	6 (8.5)	71 (100.0)		
	국졸	7 (21.2)	6 (18.2)	3 (9.1)	16 (48.5)	1 (3.0)	33 (100.0)		
보호자직업	농·어·목축업	36 (29.5)	27 (22.1)	9 (7.4)	42 (34.4)	8 (6.6)	122 (100.0)	16	22.789
	자영업	17 (21.5)	16 (20.3)	2 (2.5)	37 (46.8)	7 (8.9)	79 (100.0)		
	판매·서비스직	24 (20.7)	23 (19.8)	19 (16.4)	41 (35.3)	9 (7.8)	116 (100.0)		
	공무원·교사	11 (16.2)	19 (27.9)	5 (7.4)	26 (38.2)	7 (10.3)	68 (100.0)		
	기타	14 (25.5)	16 (29.1)	3 (5.5)	17 (30.9)	5 (9.1)	55 (100.0)		
전체		102 (23.2)	101 (23.0)	38 (8.6)	163 (37.0)	36 (8.2)	440 (100.0)		

(\* p <.05 , \*\*\* p <.001)



〈표5〉 학생들이 생각하는 제주인의 단점

단위 : 명(%)

		무뚝뚝함	이기적	보수적	사치적	기 타	계	d.f	$\chi^2$
성별	남	53 (23.6)	45 (20.0)	86 (38.2)	26 (11.6)	15 (6.7)	225 (100.0)	4	7.150
	여	73 (34.0)	34 (15.8)	75 (34.9)	17 (7.9)	16 (7.4)	215 (100.0)		
거주지역	시	71 (25.4)	53 (19.0)	102 (36.6)	31 (11.1)	22 (7.9)	279 (100.0)	4	5.329
	읍·면	55 (34.2)	26 (16.1)	59 (36.6)	12 (7.5)	9 (5.6)	161 (100.0)		
학년	1학년	35 (26.3)	37 (27.8)	44 (33.1)	11 (8.3)	6 (4.5)	133 (100.0)	8	22.487 * *
	2학년	58 (34.5)	20 (11.9)	62 (36.9)	12 (7.1)	16 (9.5)	168 (100.0)		
	3학년	33 (23.7)	22 (15.8)	55 (39.6)	20 (14.4)	9 (6.8)	139 (100.0)		
부의 고향	제주	85 (26.6)	54 (16.9)	125 (39.1)	31 (9.7)	25 (7.8)	320 (100.0)	4	5.471
	제주 이외	41 (34.2)	25 (20.8)	36 (30.0)	12 (10.0)	6 (5.0)	120 (100.0)		
가계소득	50만원 미만	21 (36.2)	11 (19.0)	15 (25.9)	8 (13.8)	3 (5.2)	58 (100.0)	16	19.045
	50만~ 99만원	20 (22.2)	17 (18.9)	35 (38.9)	9 (10.0)	9 (10.0)	90 (100.0)		
	100만~ 149만원	46 (30.9)	27 (18.1)	59 (39.6)	11 (7.4)	6 (4.0)	149 (100.0)		
	150만~ 199만원	16 (20.0)	12 (15.0)	36 (45.0)	8 (10.0)	8 (10.0)	80 (100.0)		
	200만원 이상	23 (36.5)	12 (19.0)	16 (25.4)	7 (11.1)	5 (7.9)	63 (100.0)		
보호자교육정도	대졸	24 (27.0)	18 (20.2)	30 (33.7)	7 (7.9)	10 (11.2)	89 (100.0)	12	11.191
	고졸	69 (27.9)	49 (19.8)	89 (36.0)	25 (10.1)	15 (6.1)	247 (100.0)		
	중졸	24 (33.8)	8 (11.3)	29 (40.8)	5 (7.0)	5 (7.0)	71 (100.0)		
	국졸	9 (27.3)	4 (12.1)	13 (39.4)	6 (18.2)	1 (3.0)	33 (100.0)		
보호자직업	농·어· 목축업	33 (27.0)	16 (13.1)	54 (44.3)	14 (11.5)	5 (4.1)	122 (100.0)	16	23.395
	자영업	23 (29.1)	26 (32.9)	19 (24.1)	6 (7.6)	5 (6.3)	79 (100.0)		
	관 매· 서비스직	31 (26.7)	19 (16.4)	44 (37.9)	12 (10.3)	10 (8.6)	116 (100.0)		
	공무원 · 교사	20 (29.4)	10 (14.7)	27 (39.7)	6 (8.8)	5 (7.4)	68 (100.0)		
	기타	19 (34.5)	8 (14.5)	17 (30.9)	5 (9.1)	6 (10.9)	55 (100.0)		
전체		126 (28.6)	79 (18.0)	161 (36.6)	43 (9.8)	31 (7.0)	440 (100.0)		

( \*\* p <.01)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성별로는 남학생은 “보수적이다“ 에 38.2% ,여학생은 34.9%가 응답을 하였으며, 부의 고향별로는 제주도가 고향인 경우 ”보수적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39.1%로 가장 높았으나, 제주도가 고향이 아닌 경우는 ”보수적이다“에 응답한 비율(30.0%)보다 ”무뚝뚝하다“에 응답한 비율이 34.2%로 의외로 높게 나타났다.

비록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보호자 직업별로 보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보수적이다“에 높은(44.3%) 반응을 보였고, 자영업을 하는 경우는 ”이기적이다“에 높은(32.9%) 반응을 보였다.

### 3) 인생 목표

제주도 중학생들이 생각하는 인생 목표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목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표와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7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 (14.8 %),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10.9%), ‘지위와 명예를 높이는 것(1.8%)’ 등의 순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기성세대들이 선호하는 권력·부·명예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성별이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성별로는 남학생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 에 64.0% ,여학생은 76.3%가 응답을 하였으며,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에는 남학생이 14.7%가, 여학생은 7.0%가 응답하여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학년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에 75.6%를, 3학년은 72.7%, 그리고 1학년은

<표6> 인생목표

단위 : 명(%)

		경제부유	하고싶은	사회봉사	지위명예	기 타	계	d.f	$\chi^2$
성별	남	36 (16.0)	144 (64.0)	33 (14.7)	6 (2.7)	6 (2.7)	225 (100.0)	4	10.672 *
	여	29 (13.5)	164 (76.3)	15 (7.0)	2 (0.9)	5 (2.3)	215 (100.0)		
거주지역	시	40 (14.3)	197 (70.6)	29 (10.4)	3 (1.1)	10 (3.6)	279 (100.0)	4	6.224
	읍·면	25 (15.5)	111 (68.9)	19 (11.8)	5 (3.1)	1 (0.6)	161 (100.0)		
학년	1학년	19 (14.3)	80 (60.2)	26 (19.5)	5 (3.8)	3 (2.3)	133 (100.0)	8	23.835 *
	2학년	20 (11.9)	127 (75.6)	13 (7.7)	3 (1.8)	5 (3.0)	168 (100.0)		
	3학년	26 (18.7)	101 (72.7)	9 (6.5)	-	3 (2.2)	139 (100.0)		
부의고향	제주	52 (16.3)	223 (69.7)	30 (9.4)	5 (1.6)	10 (3.1)	320 (100.0)	4	6.536
	제주 이외	13 (10.8)	85 (70.8)	18 (15.0)	3 (2.5)	1 (0.8)	120 (100.0)		
가계소득	50만원 미만	7 (12.1)	38 (65.5)	12 (20.7)	-	1 (1.7)	58 (100.0)	16	15.644
	50만~ 99만원	12 (13.3)	64 (71.1)	10 (11.1)	2 (2.2)	2 (2.2)	90 (100.0)		
	100만~ 149만원	23 (15.4)	108 (72.5)	13 (8.7)	2 (1.3)	3 (2.0)	149 (100.0)		
	150만~ 199만원	16 (20.0)	56 (70.0)	4 (5.0)	2 (2.5)	2 (2.5)	80 (100.0)		
	200만원 이상	7 (11.1)	42 (66.7)	9 (14.3)	2 (3.2)	3 (4.8)	63 (100.0)		
보호 자교 육정 도	대졸	13 (14.6)	55 (61.8)	17 (19.1)	2 (2.2)	2 (2.2)	89 (100.0)	12	17.978
	고졸	36 (14.6)	182 (73.7)	18 (7.3)	4 (1.6)	7 (2.8)	247 (100.0)		
	중졸	7 (9.9)	53 (74.6)	8 (11.3)	2 (2.8)	1 (1.4)	71 (100.0)		
	국졸	9 (27.3)	18 (54.5)	5 (15.2)	-	1 (3.0)	33 (100.0)		
보호 자직 업	농·어· 목축업	13 (10.7)	94 (77.0)	12 (9.8)	1 (0.8)	2 (1.6)	122 (100.0)	16	24.811
	자영업	14 (17.7)	51 (64.6)	7 (8.9)	5 (6.3)	2 (2.5)	79 (100.0)		
	관 매· 서비스직	12 (10.3)	87 (75.0)	15 (12.9)	-	2 (1.7)	116 (100.0)		
	공무원 ·교사	15 (22.1)	40 (58.8)	9 (13.2)	1 (1.5)	3 (4.4)	68 (100.0)		
	기타	11 (20.0)	36 (65.5)	5 (9.1)	1 (1.8)	2 (3.6)	55 (100.0)		
전체		65 (14.8)	308 (70.0)	48 (10.9)	8 (1.8)	11 (2.5)	440 (100.0)		

(\* p <.05 , \*\* p <.01)

60.2%의 응답률을 보였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에는 3학년이 18.7%로 2학년(11.9%)이나 1학년(14.3%)보다 높게 나타나 3학년이 경제력의 중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에는 1학년이 19.5%로 2학년(7.7%)이나 3학년(6.5%)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여 학년이 낮아질수록 사회봉사 활동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보호자 교육정도별로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 다음으로 높은 반응을 보인 것은 대졸인 경우 19.15%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에, 국졸인 경우 27.3%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 4) 미래 사회의 중요한 자원

제주도 중학생들의 미래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한 결과는 <표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가족’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62.3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정보(22.5 %), 이웃(6.6%) 등의 순으로 나타나 가족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이웃보다는 정보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어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인 삶보다는 각종 통신수단의 발달로 가족 중심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배경변인면에서 보면 학년별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학년은 71.4%가 가족이라고 응답함으로써 2학년(63.7%)이나 3학년(51.8%)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정보가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것은 3학년(31.7%)이 2학년(22.6%)이나 1학년(12.8%)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저학년일수록 가족이 중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으며, 고학년일수록 정보의 중요성을 더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부의 고향별로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7〉 미래사회의 중요한 자원

단위 : 명( % )

		가족	이웃	정보	국가	기 타	계	d.f	x <sup>2</sup>
성별	남	136 (60.4)	18 (8.0)	51 (22.7)	6 (2.7)	14 (6.2)	225 (100.0)	4	1.723
	여	138 (64.2)	11 (5.1)	48 (22.3)	6 (2.8)	12 (5.6)	215 (100.0)		
거주지역	시	173 (62.0)	19 (6.8)	62 (22.2)	7 (2.5)	18 (6.5)	279 (100.0)	4	0.603
	읍·면	101 (62.7)	10 (6.2)	37 (23.0)	5 (3.1)	8 (5.0)	161 (100.0)		
학년	1학년	95 (71.4)	11 (8.3)	17 (12.8)	5 (3.8)	5 (3.8)	133 (100.0)	8	20.565 * *
	2학년	107 (63.7)	7 (4.2)	38 (22.6)	3 (1.8)	13 (7.7)	168 (100.0)		
	3학년	72 (51.8)	11 (7.9)	44 (31.7)	4 (2.9)	3 (5.8)	139 (100.0)		
부의고향	제주	193 (60.3)	20 (6.3)	71 (22.2)	12 (3.8)	24 (7.5)	320 (100.0)	4	10.507 *
	제주 이외	81 (67.5)	9 (7.5)	28 (23.3)	-	2 (1.7)	120 (100.0)		
가계소득	50만원 미만	39 (67.2)	4 (6.9)	11 (19.0)	2 (3.4)	2 (3.4)	58 (100.0)	16	18.174
	50만~99만원	63 (70.0)	5 (5.6)	10 (11.1)	2 (2.2)	10 (11.1)	90 (100.0)		
	100만~149만원	87 (58.4)	10 (6.7)	39 (26.2)	5 (3.4)	8 (5.4)	149 (100.0)		
	150만~199만원	51 (63.8)	5 (6.3)	19 (23.8)	1 (1.3)	4 (5.0)	80 (100.0)		
	200만원 이상	34 (54.0)	5 (7.9)	20 (31.7)	2 (3.2)	2 (3.2)	63 (100.0)		
보호자교육정도	대졸	54 (60.7)	9 (10.1)	20 (22.5)	1 (1.1)	5 (5.6)	89 (100.0)	12	11.000
	고졸	146 (59.1)	16 (6.5)	58 (23.5)	9 (3.6)	18 (7.3)	247 (100.0)		
	중졸	52 (73.2)	2 (2.8)	13 (18.3)	1 (1.4)	3 (4.2)	71 (100.0)		
	국졸	22 (66.7)	2 (6.1)	8 (24.2)	1 (3.0)	-	33 (100.0)		
보호자직업	농·어·목축업	72 (59.0)	7 (5.7)	28 (23.0)	3 (2.5)	12 (9.8)	122 (100.0)	16	24.656
	자영업	48 (60.8)	8 (10.1)	17 (21.5)	2 (2.5)	4 (5.1)	79 (100.0)		
	판매·서비스직	85 (73.3)	5 (4.3)	23 (19.8)	1 (0.9)	2 (1.7)	116 (100.0)		
	공무원·교사	39 (57.4)	7 (10.3)	18 (26.5)	2 (2.9)	2 (2.9)	68 (100.0)		
	기타	30 (54.5)	2 (3.6)	13 (23.6)	4 (7.3)	6 (10.9)	55 (100.0)		
전체		274 (62.3)	29 (6.6)	99 (22.5)	12 (2.7)	26 (5.9)	440 (100.0)		

(\* p <.05 , \*\* p <.01)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는 부의 고향에 관계없이 '가족'이라고 했으며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부의 고향이 다른 지방인 경우가 23.3%로 제주 지역인 경우(22.2%)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계소득별로는 월 평균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는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으로는 '가족'이라고 했으며 '정보'의 중요성은 월 평균 2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 5) 사회적 성공 요인

학생들이 생각하는 제주도사회에서의 사회적 성공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도에서 성공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한 결과는 <표8>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실력'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62.0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직업'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4.8 %로 나타나 학생들에게 있어서 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는 실력과 직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밖에 돈이나 학벌이 성공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응답한 학생도 19.8%나 되는것도 눈여겨 볼 만 하다.

배경 변인별로보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성별로는 남학생(14.7%)이 여학생(11.2%)보다는 돈을, 여학생 17.7%)은 남학생(12.0%)보다는 직업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년별로는 '돈이 중요하다'에 1학년이 9.0%, 2학년이 11.9%, 3학년이 18.0%가 응답하였고, '실력이 중요하다'에 1학년이 70.7%, 2학년이 63.1%, 3학년이 52.5%가 응답함으로써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돈이,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실력이 성공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8〉 사회적 성공요인

단위 : 명(%)

		돈	실력	직업	학벌	기 타	계	d.f	$\chi^2$
성별	남	33 (14.7)	140 (62.2)	27 (12.0)	16 (7.1)	9 (4.0)	225 (100.0)	4	3.970
	여	24 (11.2)	133 (61.9)	38 (17.7)	14 (6.5)	6 (2.8)	215 (100.0)		
거주지역	시	41 (14.7)	169 (60.6)	40 (14.3)	19 (6.8)	10 (3.6)	279 (100.0)	4	2.217
	읍·면	16 (9.9)	104 (64.6)	25 (15.5)	11 (6.8)	5 (3.1)	161 (100.0)		
학년	1학년	12 (9.0)	94 (70.7)	17 (12.8)	8 (6.0)	2 (1.5)	133 (100.0)	8	13.668
	2학년	20 (11.9)	106 (63.1)	22 (13.1)	14 (8.3)	6 (3.6)	168 (100.0)		
	3학년	25 (18.0)	73 (52.5)	26 (18.7)	8 (5.8)	7 (5.0)	139 (100.0)		
부의고향	제주	46 (14.4)	196 (61.3)	44 (13.8)	21 (6.6)	13 (4.1)	320 (100.0)	4	4.360
	제주 이외	11 (9.2)	77 (64.2)	21 (17.5)	9 (7.5)	2 (1.7)	120 (100.0)		
가계소득	50만원 미만	7 (12.1)	31 (53.4)	14 (24.1)	3 (5.2)	3 (5.2)	58 (100.0)	16	14.962
	50만~99만원	9 (10.0)	60 (66.7)	13 (14.4)	6 (6.7)	2 (2.2)	90 (100.0)		
	100만~149만원	19 (12.8)	94 (63.1)	25 (16.8)	7 (4.7)	4 (2.7)	149 (100.0)		
	150만~199만원	14 (17.5)	48 (60.0)	8 (10.0)	7 (8.8)	3 (3.8)	80 (100.0)		
	200만원 이상	8 (12.7)	40 (63.5)	5 (7.9)	7 (11.1)	3 (4.8)	63 (100.0)		
보호자교육정도	대졸	12 (13.5)	51 (57.3)	16 (18.0)	6 (6.7)	4 (4.5)	89 (100.0)	12	17.886
	고졸	36 (14.6)	153 (61.9)	29 (11.7)	21 (8.5)	8 (3.2)	247 (100.0)		
	중졸	4 (5.6)	52 (73.2)	10 (14.1)	3 (4.2)	2 (2.8)	71 (100.0)		
	국졸	5 (15.2)	17 (51.5)	10 (30.3)	-	1 (3.0)	33 (100.0)		
보호자직업	농·어·목축업	13 (10.7)	83 (68.0)	17 (13.9)	6 (4.9)	3 (2.5)	122 (100.0)	16	11.584
	자영업	12 (15.2)	49 (62.0)	13 (16.5)	4 (5.1)	1 (1.3)	79 (100.0)		
	판매·서비스직	16 (13.8)	66 (56.9)	15 (12.9)	12 (10.3)	7 (6.0)	116 (100.0)		
	공무원·교사	9 (13.2)	43 (63.2)	10 (14.7)	5 (7.4)	1 (1.5)	68 (100.0)		
	기타	7 (12.7)	32 (58.2)	10 (18.2)	3 (5.5)	3 (5.5)	55 (100.0)		
전체		57 (13.0)	273 (62.0)	65 (14.8)	30 (6.8)	15 (3.4)	440 (100.0)		

## 6) 제주사람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전통 문화

자기 고장의 뿌리와 발자취를 찾는 작업은 전통 문화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며 또한 공동체의식을 창조·계승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역사와 전통 문화 중에 우리 제주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돌하르방’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2.5%, ‘삼무정신’이 31.8%, ‘즈낭정신이 28.2%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중학생들에게 제주사람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전통문화로 돌하르방을 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아마도 학교 교육에서 돌하르방에 대한 학습은 이루어지지만 삼무정신이나 즈낭정신에 대한 학습과정안이 없거나 소홀히 다루는 데에서 오는 현상일 수도 있을 것이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가계소득별로는  $p < .01$  수준에서, 보호자 직업별로 보면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계소득별로 보면 5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은 ‘돌하르방’(53.4%)에, 100만원에서 149만원의 소득층은 ‘삼무정신’(38.3%)에, 150만원에서 199만원의 소득층은 ‘즈낭정신(32.5%)을 각각 제주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보호자 직업별로 보면 농업·어업·목축업에 종사하는 보호자를 둔 학생은 돌하르방(37.7%)에, 자영업의 경우는 즈낭정신(36.7%)에, 판매·서비스직의 경우는 삼무정신(37.1%)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다.

비록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부의 고향별로 보면 제주사람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전통문화로서 제주이외의 고향을 둔 부의 학생은 ‘돌하르방’에 높은 응답률(41.7%)을 보인 반면, 제주가 고향인 부의 학생은 ‘삼무정신’에 높은 응답률(34.4%)을 보이고 있으며 ‘돌하르방’과 ‘즈낭정신’에 같은 응답률(29.1%)을 보이고 있는 것도 특이한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거주지역별로 보면 시 지역 학생은 ‘삼무정신’(34.4%)에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읍·면 지역 학생은 ‘즈낭정신’(34.2%)에 높은 응답률을 보이



고 있는데 이것은 시 지역 학생보다 농촌 지역 학생들이 평소 생활에서도 근검 절약 정신이 습관화되어 있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 7) 제주도의 역사와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

평소에 제주도의 역사와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제주도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매우 관심이 많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6.6%, ‘약간 관심이 있다’가 43.3%로 관심이 있는 학생을 50.0%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34.3%, ‘전혀 관심이 없다’가 9.1%로 나타나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학생까지 포함한다면 무려 50.0%로 제주도의 역사와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없는 학생이 절반이나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현재 실시하고있는 지역화 학습과 관련하여 학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학년별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은 63.1%가, 2학년은 47.7%가, 3학년은 40.3%만이 관심 있다고 응답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제주도의 역사와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희박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현행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지역화 단원에 대한 보완 작업이 시급하다고 본다.

비록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성별로는 남학생이 62.0%로 높은 관심을 보인 반면에 여학생은 48.9%로 비교적 낮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거주지역별로 보면 시 지역 학생(53.0%)이 읍·면 지역 학생(44.7%)보다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9〉 제주 사람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전통문화

단위 : 명(%)

		돌하르방	삼무정신	설문대할망	조낭정신	기 타	계	d.f	$\chi^2$
성별	남	77 (34.2)	77 (34.2)	7 (3.1)	58 (25.8)	6 (2.7)	225 (100.0)	4	4.258
	여	66 (30.7)	63 (29.3)	9 (4.2)	66 (30.7)	11 (5.1)	215 (100.0)		
거주지역	시	90 (32.3)	96 (34.4)	12 (4.3)	69 (24.7)	12 (4.3)	279 (100.0)	4	6.147
	읍·면	53 (32.9)	44 (27.3)	4 (2.5)	55 (34.2)	5 (3.1)	161 (100.0)		
학년	1학년	44 (33.1)	33 (24.8)	4 (3.0)	49 (36.8)	3 (2.3)	133 (100.0)	8	14.486
	2학년	55 (32.7)	54 (32.1)	5 (3.0)	48 (28.6)	6 (3.6)	168 (100.0)		
	3학년	44 (31.7)	53 (38.1)	7 (5.0)	27 (19.4)	8 (5.8)	139 (100.0)		
부의고향	제주	93 (29.1)	110 (34.4)	11 (3.4)	93 (29.1)	13 (4.1)	320 (100.0)	4	7.247
	제주의외	50 (41.7)	30 (25.0)	5 (4.2)	31 (25.8)	4 (3.3)	120 (100.0)		
가계소득	50만원미만	31 (53.4)	9 (15.5)	3 (5.2)	14 (24.1)	1 (1.7)	58 (100.0)	16	32.341 * *
	50만~99만원	30 (33.3)	28 (31.1)	2 (2.2)	28 (31.1)	2 (2.2)	90 (100.0)		
	100만~149만원	40 (26.8)	57 (38.3)	4 (2.7)	43 (28.9)	5 (3.4)	149 (100.0)		
	150만~199만원	25 (31.3)	24 (30.0)	1 (1.3)	26 (32.5)	4 (5.0)	80 (100.0)		
	200만원이상	17 (27.0)	22 (34.9)	6 (9.5)	13 (20.6)	5 (7.9)	63 (100.0)		
보호자교육정도	대졸	24 (27.0)	29 (32.6)	3 (3.4)	28 (31.5)	5 (5.6)	89 (100.0)	12	9.006
	고졸	81 (32.8)	84 (34.0)	7 (2.8)	66 (26.7)	9 (3.6)	247 (100.0)		
	중졸	24 (33.8)	21 (29.6)	4 (5.6)	19 (26.8)	3 (4.2)	71 (100.0)		
	국졸	14 (42.4)	6 (18.2)	2 (6.1)	11 (33.3)	-	33 (100.0)		
보호자직업	농·어·목축업	46 (37.7)	39 (32.0)	4 (3.3)	31 (25.4)	2 (1.6)	122 (100.0)	16	27.396 *
	자영업	21 (26.6)	19 (24.1)	6 (7.6)	29 (36.7)	4 (5.1)	79 (100.0)		
	판매·서비스직	45 (38.8)	43 (37.1)	3 (2.6)	20 (17.2)	5 (4.3)	116 (100.0)		
	공무원·교사	18 (26.5)	21 (30.9)	2 (2.9)	22 (32.4)	5 (7.4)	68 (100.0)		
	기타	13 (23.6)	18 (32.7)	1 (1.8)	22 (40.0)	1 (1.8)	55 (100.0)		
전체		143 (32.5)	140 (31.8)	16 (3.6)	124 (28.2)	17 (3.9)	440 (100.0)		

(\* p <.05, \*\* p <.01)

〈표10〉 제주도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단위 : 명( % )

		매우많다	약간관심	별로없다	전혀없다	모르겠다	계	d.f	$\chi^2$
성별	남	17 (17.6)	100 (44.4)	80 (35.6)	14 (6.2)	14 (6.2)	225 (100.0)	4	5.232
	여	12 (5.6)	91 (42.3)	71 (33.0)	26 (12.1)	15 (7.0)	215 (100.0)		
거주지역	시	16 (5.7)	132 (47.3)	93 (33.3)	23 (8.2)	15 (5.4)	279 (100.0)	4	6.047
	읍·면	13 (8.1)	59 (36.6)	58 (36.0)	17 (10.6)	14 (8.7)	161 (100.0)		
학년	1학년	14 (10.5)	70 (52.6)	35 (26.3)	7 (5.3)	7 (5.3)	133 (100.0)	8	19.633 *
	2학년	10 (6.0)	70 (41.7)	64 (38.1)	15 (8.9)	9 (5.4)	168 (100.0)		
	3학년	5 (3.6)	51 (36.7)	52 (37.4)	18 (12.9)	13 (9.4)	139 (100.0)		
부의고향	제주	21 (6.6)	146 (45.6)	102 (31.9)	29 (9.1)	22 (6.9)	320 (100.0)	4	3.514
	제주의외	8 (6.7)	45 (37.5)	49 (40.8)	11 (9.2)	7 (5.8)	120 (100.0)		
가계소득	50만원미만	5 (8.6)	19 (32.8)	21 (36.2)	6 (10.3)	7 (12.1)	58 (100.0)	16	22.212
	50만~99만원	9 (10.0)	42 (46.7)	32 (35.6)	2 (2.2)	5 (5.6)	90 (100.0)		
	100만~149만원	6 (4.0)	74 (49.7)	45 (30.2)	17 (11.4)	7 (4.7)	149 (100.0)		
	150만~199만원	5 (6.3)	26 (32.5)	35 (43.8)	8 (10.0)	6 (7.5)	80 (100.0)		
	200만원이상	4 (6.3)	30 (47.6)	18 (28.6)	7 (11.1)	4 (6.3)	63 (100.0)		
보호자교육정도	대졸	8 (9.0)	36 (40.4)	37 (41.6)	7 (7.9)	1 (1.1)	89 (100.0)	12	20.428
	고졸	14 (5.7)	117 (47.4)	71 (28.7)	27 (10.9)	18 (7.3)	247 (100.0)		
	중졸	5 (7.0)	26 (36.6)	28 (39.4)	3 (4.2)	9 (12.7)	71 (100.0)		
	국졸	2 (6.1)	12 (36.4)	15 (45.5)	3 (9.1)	1 (3.0)	33 (100.0)		
보호자직업	농·어·목축업	9 (7.4)	53 (43.4)	37 (30.3)	12 (9.8)	11 (9.0)	122 (100.0)	16	14.677
	자영업	6 (7.6)	34 (43.0)	30 (38.0)	8 (10.1)	1 (1.3)	79 (100.0)		
	판매·서비스직	6 (5.2)	48 (41.4)	40 (34.5)	10 (8.6)	12 (10.3)	116 (100.0)		
	공무원·교사	6 (8.8)	28 (41.2)	24 (35.3)	8 (11.8)	2 (2.9)	68 (100.0)		
	기타	2 (3.6)	28 (50.9)	20 (36.4)	2 (3.6)	3 (5.5)	55 (100.0)		
전체		29 (6.6)	191 (43.4)	151 (34.3)	40 (9.1)	29 (6.6)	440 (100.0)		

( \* p < .05 )

## 2. 심리적 동일성에 대한 논의

제주인이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를 말하는 심리적 동일성에 대한 제주도 중학생들의 의식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제주인이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 방언의 사용 빈도, 소속감 및 일체감의 정도, 친근감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을 설정하였다.

### 1) 제주 사람이라고 느끼는 정도

평소에 제주 사람이라는 느끼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평소에 나는 제주 사람이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자주 생각한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23.0%, ‘가끔 생각한다’가 41.8%,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가 18.6%,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가 7.0% 등의 순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학생(64.8%)은 제주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배경 변인별로 보면 부의 고향별로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의 고향이 제주인 학생은 70.3%가 평소에 나는 제주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부의 고향이 다른 지방인 학생은 50.8%가 제주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의 고향이 제주인 학생이 평소에도 제주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거주지역별로는 시 지역 학생이 67.8%로 읍·면 지역 학생(59.6%)보다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은 이외의 결과로 보인다.

### 2) 제주 방언의 사용 빈도

〈표11〉 제주 사람들이라고 느끼는 정도

단위 : 명(%)

		자주생각	가끔생각	거의안함	전혀안함	모름	계	d.f	$\chi^2$
성별	남	55 (24.4)	92 (40.9)	44 (19.6)	16 (7.1)	18 (8.0)	225 (100.0)	4	1.904
	여	46 (21.4)	92 (42.8)	38 (17.7)	15 (7.0)	24 (11.2)	215 (100.0)		
거주지역	시	66 (23.7)	123 (44.1)	44 (15.8)	17 (6.1)	29 (10.4)	279 (100.0)	4	6.018
	읍·면	35 (21.7)	61 (37.9)	38 (23.6)	14 (8.7)	13 (8.1)	161 (100.0)		
학년	1학년	33 (24.8)	54 (40.6)	25 (18.8)	8 (6.0)	13 (9.8)	133 (100.0)	8	1.872
	2학년	39 (23.2)	68 (40.5)	34 (20.2)	12 (7.1)	15 (8.9)	168 (100.0)		
	3학년	29 (20.9)	62 (44.6)	23 (16.5)	11 (7.9)	14 (10.1)	139 (100.0)		
부의고향	제주	83 (25.9)	141 (44.4)	51 (15.9)	19 (5.9)	26 (8.1)	320 (100.0)	4	15.072 **
	제주 이외	18 (15.0)	43 (35.8)	31 (25.8)	12 (10.0)	16 (13.3)	120 (100.0)		
가계소득	50만원 미만	12 (20.7)	21 (36.2)	11 (19.0)	7 (12.1)	7 (12.1)	58 (100.0)	16	14.592
	50만~99만원	26 (28.9)	33 (36.7)	17 (18.9)	3 (3.3)	11 (12.2)	90 (100.0)		
	100만~149만원	31 (20.8)	68 (45.6)	25 (16.8)	11 (7.4)	14 (9.4)	149 (100.0)		
	150만~199만원	15 (18.8)	38 (47.5)	15 (18.8)	4 (5.0)	8 (10.0)	80 (100.0)		
	200만원 이상	17 (27.0)	24 (38.1)	14 (22.2)	6 (9.5)	2 (3.2)	63 (100.0)		
보호자교육정도	대졸	18 (20.2)	37 (41.6)	21 (23.6)	7 (7.9)	6 (6.7)	89 (100.0)	12	12.331
	고졸	60 (24.3)	104 (42.1)	37 (15.0)	19 (7.7)	27 (10.9)	247 (100.0)		
	중졸	18 (25.4)	29 (40.8)	13 (18.3)	3 (4.2)	8 (11.3)	71 (100.0)		
	국졸	5 (15.2)	14 (42.4)	11 (33.3)	2 (6.1)	1 (3.0)	33 (100.0)		
보호자직업	농·어·목축업	28 (23.0)	45 (36.9)	26 (21.3)	11 (9.0)	12 (9.8)	122 (100.0)	16	15.366
	자영업	15 (19.0)	41 (51.9)	11 (13.9)	3 (3.8)	9 (11.4)	79 (100.0)		
	판매·서비스직	25 (21.6)	44 (37.9)	24 (20.7)	11 (9.5)	12 (10.3)	116 (100.0)		
	공무원·교사	14 (20.6)	33 (48.5)	13 (19.1)	4 (5.9)	4 (5.9)	68 (100.0)		
	기타	19 (34.5)	21 (38.2)	8 (14.5)	2 (3.6)	5 (9.1)	55 (100.0)		
전체		101 (23.0)	184 (41.8)	82 (18.6)	31 (7.0)	42 (9.5)	440 (100.0)		

( \*\* p <.01)

방언은 한 사회에서의 애착심 내지 소속감의 척도를 가르킨다는 의미에서 “평소에 제주도 사투리를 사용합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가끔 사용한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51.8%, ‘자주 사용한다’가 23.4%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75.2%)은 제주 사투리를 일상 생활에서 가끔씩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경 변인별로 보면 부의 고향별로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의 고향이 제주인 학생은 80.6%가 응답하여, 부의 고향이 다른 지방인 학생(60.9%)보다 평소에 제주 사투리를 자주 또는 가끔씩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의 고향이 제주가 아닌 학생(39.1%)이 부의 고향이 제주인 학생(19.4%)보다 평소에 제주 사투리를 대체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무래도 소속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거주지역별로는 시 지역 학생이 76.0%로 읍·면 지역 학생(73.9%)보다 평소에 제주 사투리를 가끔씩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다소 이외의 결과로 보인다.

### 3) 제주사람들이 선호하는 응원팀

제주 사람으로서 느끼는 일체감 내지 소속감을 알아보기 위해서 “만약 제주 종합운동장에서 프로축구팀과 제주 선발팀과의 경기가 열린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응원하겠습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제주 선발팀’이 31.1%, ‘프로팀’이 25.0%, ‘양팀 전부’라고 응답한 학생이 24.5%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로써 아직까지는 제주에 대한 소속감 내지 일체감을 가지고 있으나 프로팀이나 양팀 모두를 응원하겠다고 응답한 학생도 각각 25.0%, 24.5%로 나타나고 있다.

〈표12〉 제주 방언의 사용 빈도

단위 : 명(%)

		자주사용	가끔사용	대체로안함	전혀안함	계	d.f	x <sup>2</sup>
성별	남	46 (20.4)	122 (54.2)	35 (15.6)	22 (9.8)	225 (100.0)	3	3.033
	여	57 (26.5)	106 (49.3)	36 (16.7)	16 (7.4)	215 (100.0)		
거주지역	시	66 (23.7)	146 (52.3)	39 (14.0)	28 (10.0)	279 (100.0)	3	3.988
	읍·면	37 (23.0)	82 (50.9)	32 (19.9)	10 (6.2)	161 (100.0)		
학년	1학년	20 (15.0)	74 (55.6)	23 (17.3)	16 (12.0)	133 (100.0)	6	11.606
	2학년	51 (30.4)	79 (47.0)	27 (16.1)	11 (6.5)	168 (100.0)		
	3학년	32 (23.0)	75 (54.0)	21 (15.1)	11 (7.9)	139 (100.0)		
부의고향	제주	83 (25.9)	175 (54.7)	40 (12.5)	22 (6.9)	320 (100.0)	3	18.898 ***
	제주 이외	20 (16.7)	53 (44.2)	31 (25.8)	16 (13.3)	120 (100.0)		
가계소득	50만원 미만	9 (15.5)	32 (55.2)	11 (19.0)	6 (10.3)	58 (100.0)	12	6.682
	50만~99만원	24 (26.7)	43 (47.8)	15 (16.7)	8 (8.9)	90 (100.0)		
	100만~149만원	32 (21.5)	84 (56.4)	22 (14.8)	11 (7.4)	149 (100.0)		
	150만~199만원	20 (25.0)	37 (46.3)	14 (17.5)	9 (11.3)	80 (100.0)		
	200만원 이상	18 (28.6)	32 (50.8)	9 (14.3)	4 (6.3)	63 (100.0)		
보호자교육정도	대졸	17 (19.1)	50 (56.2)	15 (16.9)	7 (7.9)	89 (100.0)	9	16.397
	고졸	60 (24.3)	127 (51.4)	38 (15.4)	22 (8.9)	247 (100.0)		
	중졸	22 (31.0)	37 (52.1)	6 (8.5)	6 (8.5)	71 (100.0)		
	국졸	4 (12.1)	14 (42.4)	12 (36.4)	3 (9.1)	33 (100.0)		
보호자직업	농·어·목축업	28 (23.0)	66 (54.1)	20 (16.4)	8 (6.6)	122 (100.0)	12	6.091
	자영업	20 (25.3)	36 (45.6)	15 (19.0)	8 (10.1)	79 (100.0)		
	판매·서비스직	30 (25.9)	57 (49.1)	19 (16.4)	10 (8.6)	116 (100.0)		
	공무원·교사	16 (23.5)	35 (51.5)	9 (13.2)	8 (11.8)	68 (100.0)		
	기타	9 (16.4)	34 (61.8)	8 (14.5)	4 (7.3)	55 (100.0)		
전체		103 (23.4)	228 (51.8)	71 (16.1)	38 (8.6)	440 (100.0)		

(\*\*\* p <.001)

〈표13〉 제주 사람들이 선호하는 응원팀

단위 : 명(%)

		프로팀	제주선발	양쪽전부	모름	계	d.f	$\chi^2$
성별	남	44 (19.6)	81 (36.0)	61 (27.1)	39 (17.3)	225 (100.0)	3	11.132 *
	여	66 (30.7)	56 (26.0)	47 (21.9)	46 (21.4)	215 (100.0)		
거주지역	시	65 (23.3)	90 (32.3)	72 (25.8)	52 (18.6)	279 (100.0)	3	1.869
	읍·면	45 (28.0)	47 (29.2)	36 (22.4)	33 (20.5)	161 (100.0)		
학년	1학년	33 (24.8)	41 (30.8)	37 (27.8)	22 (16.5)	133 (100.0)	6	6.883
	2학년	37 (22.0)	56 (33.3)	45 (26.8)	30 (17.9)	168 (100.0)		
	3학년	40 (28.8)	40 (28.8)	26 (18.7)	33 (23.7)	139 (100.0)		
부의고향	제주	73 (22.8)	105 (32.8)	79 (24.7)	63 (19.7)	320 (100.0)	3	3.397
	제주 이외	37 (30.8)	32 (26.7)	29 (24.2)	22 (18.3)	120 (100.0)		
가계소득	50만원 미만	9 (15.5)	24 (41.4)	13 (22.4)	12 (20.7)	58 (100.0)	12	20.685
	50만~99만원	16 (17.8)	28 (31.1)	21 (23.3)	25 (27.8)	90 (100.0)		
	100만~149만원	44 (29.5)	40 (26.8)	37 (24.8)	28 (18.8)	149 (100.0)		
	150만~199만원	25 (31.3)	19 (23.8)	25 (31.3)	11 (13.8)	80 (100.0)		
	200만원 이상	16 (25.4)	26 (41.3)	12 (19.0)	9 (14.3)	63 (100.0)		
보호자교육정도	대졸	25 (28.1)	27 (30.3)	25 (28.1)	12 (13.5)	89 (100.0)	9	9.999
	고졸	65 (26.3)	73 (29.6)	61 (24.7)	48 (19.4)	247 (100.0)		
	중졸	10 (14.1)	27 (38.0)	17 (23.9)	17 (23.9)	71 (100.0)		
	국졸	10 (30.3)	10 (30.3)	5 (15.2)	8 (24.2)	33 (100.0)		
보호자직업	농·어·목축업	28 (23.0)	40 (32.8)	26 (21.3)	28 (23.0)	122 (100.0)	12	14.681
	자영업	18 (22.8)	30 (38.0)	15 (19.0)	16 (20.3)	79 (100.0)		
	판매·서비스직	24 (20.7)	34 (29.3)	36 (31.0)	22 (19.0)	116 (100.0)		
	공무원·교사	18 (26.5)	21 (30.9)	18 (26.5)	11 (16.2)	68 (100.0)		
	기타	22 (40.0)	12 (21.8)	13 (23.6)	8 (14.5)	55 (100.0)		
전체		110 (25.0)	137 (31.1)	108 (24.5)	85 (19.3)	440 (100.0)		

(\* p <.05)



배경 변인별로 보면 성별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주 선발팀에 대한 응원은 남학생이 36.0%로 여학생(26.0%)보다 높게 반응을 보인 반면 프로팀에 대한 응원은 여학생이 30.7%로 남학생(19.6%)보다 오히려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비록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부의 고향별로는 부의 고향이 제주가 아닌 학생은 ‘프로팀을 응원하겠다’에 30.8%로 부의 고향이 제주인 학생(22.8%)보다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 부의 고향이 제주인 학생은 ‘제주 선발팀을 응원하겠다’에 32.8%로 부의 고향이 제주가 아닌 학생(26.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부의 고향에 따라서 제주에 대한 소속감이나 일체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 4) 학생들의 일체감 정도

같은 학교 친구들의 일체감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은 한 가족이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정말 그렇다’라고 한 학생이 4.3%, ‘대체로 그렇다’가 28.6%로 나타나 32.9%(남 29.7%, 여 36.3%)의 학생들만이 자기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이 한 가족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했을 뿐이다. 이에 비해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23.2%, ‘전혀 그렇지 않다’가 17.7%로 나타나, 무려 40.9%의 학생들이 일체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 변인면에서 보면, 부의 고향별로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제주가 고향인 부의 학생(34.0%)은 다른 지방이 고향인 부의 학생(30.0%)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다른 지방이 고향인 부의 학생은 22.5%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제주가 고향인 부의 학생(15.9%)보다 학교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표14〉 일체감의 정도

단위 : 명(%)

		정말그렇다	대체로그렇	대체로아니	전혀그렇지	모르겠다	계	d.f	x <sup>2</sup>
성별	남	10 (4.4)	57 (25.3)	53 (23.6)	38 (16.9)	67 (29.8)	225 (100.0)	4	4.318
	여	9 (4.2)	69 (32.1)	49 (22.8)	40 (18.6)	48 (22.3)	215 (100.0)		
거주지역	시	13 (4.7)	83 (29.7)	67 (24.0)	48 (17.2)	68 (24.4)	279 (100.0)	4	1.788
	읍·면	6 (3.7)	43 (26.7)	35 (21.7)	30 (18.6)	47 (29.2)	161 (100.0)		
학년	1학년	5 (3.8)	44 (33.1)	35 (26.3)	18 (13.5)	31 (23.3)	133 (100.0)	8	6.758
	2학년	6 (3.6)	42 (25.0)	37 (22.0)	36 (21.4)	47 (28.0)	168 (100.0)		
	3학년	8 (5.8)	40 (28.8)	30 (21.6)	24 (17.3)	37 (26.6)	139 (100.0)		
부의고향	제주	10 (3.1)	99 (30.9)	71 (22.2)	51 (15.9)	89 (27.8)	320 (100.0)	4	9.920 *
	제주 이외	9 (7.5)	27 (22.5)	31 (25.8)	27 (22.5)	26 (21.7)	120 (100.0)		
가계소득	50만원 미만	2 (3.4)	15 (25.9)	11 (19.0)	10 (17.2)	20 (34.5)	58 (100.0)	16	33.954 **
	50만~99만원	6 (6.7)	23 (25.6)	16 (17.8)	13 (14.4)	32 (35.6)	90 (100.0)		
	100만~149만원	3 (2.0)	52 (34.9)	39 (26.2)	18 (12.1)	37 (24.8)	149 (100.0)		
	150만~199만원	3 (3.8)	23 (28.8)	19 (23.8)	16 (20.0)	19 (23.8)	80 (100.0)		
	200만원 이상	5 (7.9)	13 (20.6)	17 (27.0)	21 (33.3)	7 (11.1)	63 (100.0)		
보호자교육정도	대졸	6 (6.7)	21 (23.6)	24 (27.0)	19 (21.3)	19 (21.3)	89 (100.0)	12	20.967
	고졸	10 (4.0)	83 (33.6)	54 (21.9)	40 (16.2)	60 (24.3)	247 (100.0)		
	중졸	3 (4.2)	17 (23.9)	14 (19.7)	9 (12.7)	28 (39.4)	71 (100.0)		
	국졸	-	5 (15.2)	10 (30.3)	10 (30.3)	8 (24.2)	33 (100.0)		
보호자직업	농·어·목축업	5 (4.1)	35 (28.7)	23 (18.9)	19 (15.6)	40 (32.8)	122 (100.0)	16	16.793
	자영업	3 (3.8)	21 (26.6)	21 (26.6)	12 (15.2)	22 (27.8)	79 (100.0)		
	판매·서비스직	8 (6.9)	38 (32.8)	23 (19.8)	21 (18.1)	26 (22.4)	116 (100.0)		
	공무원·교사	2 (2.9)	22 (32.4)	20 (29.4)	12 (17.6)	12 (17.6)	68 (100.0)		
	기타	1 (1.8)	10 (18.2)	15 (27.3)	14 (25.5)	15 (27.3)	55 (100.0)		
전체		19 (4.3)	126 (28.6)	102 (23.2)	78 (17.7)	115 (26.1)	440 (100.0)		

(\* p <.05, \*\* p <.01)

가계소득별로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계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학생은 7.0%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일체감을 보인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항목에서는 33.3%로 다른 가계 소득 계층보다 강한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로 보인다. 한편, 가계소득이 100만원~149만원인 경우는 36.9%, 150만원~199만원인 경우는 32.6%, 50만원~99만원인 경우는 32.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월 평균 가계소득이 100만원~149만원인 가정의 학생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성별로는 여학생이 36.3%로 남학생(29.7%)보다 같은 학교 학생에 대한 일체감을 상대적으로 더 느끼고 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학생이 36.9%로 3학년(34.6%)이나 2학년(28.6%)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직이 39.7%로 공무원·교사(35.3%)나 농·어·목축업(32.8%)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 5) 제주사람들이 외지인에 대한 거리감

제주 사람으로서 외지인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고향이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방 사람에 대해서는 거리감을 느끼십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그렇지 않다’가 76.6%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23.4%)보다 월등히 많게 조사되어 다른 지방 사람들에 대한 배타심이나 거리감이 별로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배경 변인별로 보면 비록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성별로는 여학생(76.3%)보다는 남학생(76.9%)이, 거주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 학생(76.4%)보다는 시 지역 학생(76.7%)이, 부의 고향이 제주인 학생(75.0%)보다는 부의 고향이 제주가 아닌 학생(80.8%)이, 가계 소득별로는 고소득층에서

〈표15〉 제주 사람들이 외지인에 대한 거리감

단위 : 명(%)

		그렇다	안그렇다	계	d.f	$\chi^2$
성별	남	52 (23.1)	173 (76.9)	225 (100.0)	1	0.023
	여	51 (23.7)	164 (76.3)	215 (100.0)		
거주지역	시	65 (23.3)	214 (76.7)	279 (100.0)	1	0.005
	읍·면	38 (23.6)	123 (76.4)	161 (100.0)		
학년	1학년	23 (17.3)	110 (82.7)	133 (100.0)	2	4.339
	2학년	46 (27.4)	122 (72.6)	168 (100.0)		
	3학년	34 (24.5)	105 (75.5)	139 (100.0)		
부의고향	제주	80 (25.0)	240 (75.0)	320 (100.0)	1	1.656
	제주 이외	23 (19.2)	97 (80.8)	120 (100.0)		
가계소득	50만원 미만	18 (31.0)	40 (69.0)	58 (100.0)	4	5.461
	50만~99만원	26 (28.9)	64 (71.1)	90 (100.0)		
	100만~149만원	32 (21.5)	117 (78.5)	149 (100.0)		
	150만~199만원	16 (20.0)	64 (80.0)	80 (100.0)		
	200만원 이상	11 (17.5)	52 (82.5)	63 (100.0)		
보호자교육정도	대졸	21 (23.6)	68 (76.4)	89 (100.0)	3	2.169
	고졸	57 (23.1)	190 (76.9)	247 (100.0)		
	중졸	20 (28.2)	51 (71.8)	71 (100.0)		
	국졸	5 (15.2)	28 (84.8)	33 (100.0)		
보호자직업	농·어·목축업	25 (20.5)	97 (79.5)	122 (100.0)	4	1.748
	자영업	19 (24.1)	60 (75.9)	79 (100.0)		
	판매·서비스직	26 (22.4)	90 (77.6)	116 (100.0)		
	공무원·교사	17 (25.0)	51 (75.0)	68 (100.0)		
	기타	16 (29.1)	39 (70.9)	55 (100.0)		
전체		103 (23.4)	337 (76.6)	440 (100.0)		

상대적으로 거리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행연구인 “제주인의 의식과 제주정신의 정립”<sup>25)</sup>에서 시 지역보다는 농촌 지역 거주자가 다른 집단들 보다 외지인에 대해 거리감을 더 느낀다는 조사 결과와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3. 협동성에 대한 논의

협동성에 대한 제주도 중학생들의 의식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협동심의 정도 및 참여도, 상부상조 정신, 친구에 대한 도움, 책임의식, 자원봉사 경험, 환경보전 의식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을 설정하였다.

#### 1) 협동심의 정도

학생들의 친구와의 협동심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나는 평소에 협동심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5.2%, ‘대체로 그렇다’가 58.2%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63.4%)은 자신이 협동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부정적인 견해도 23.6%(‘모르겠다’는 응답은 포함 안됨)나 되어 이들 중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관심과 지도 그리고 협동심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배경변인 면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성별로는 남학생이, 학년별로는 저학년일수록, 부의 고향이 제주가 아닌 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

25) 김향원 외(1997), 전개 논문, p.167.

〈표16〉 학생들의 협동심의 정도

단위 : 명( % )

		정말그렇다	대체로그렇	대체로아니	전혀그렇지	모르겠다	계	df	$\chi^2$
성별	남	15 (6.7)	135 (60.0)	28 (12.4)	6 (2.7)	41 (18.2)	225 (100.0)	4	4.098
	여	8 (3.7)	121 (56.3)	29 (13.5)	10 (4.7)	47 (21.9)	215 (100.0)		
거주지역	시	19 (6.8)	159 (57.0)	38 (13.6)	7 (2.5)	56 (20.1)	279 (100.0)	4	6.768
	읍·면	4 (2.5)	97 (60.2)	19 (11.8)	9 (5.6)	32 (19.9)	161 (100.0)		
학년	1학년	7 (5.3)	84 (63.2)	16 (12.0)	2 (1.5)	24 (18.0)	133 (100.0)	8	6.207
	2학년	10 (6.0)	93 (55.4)	19 (11.3)	9 (5.4)	37 (22.0)	168 (100.0)		
	3학년	6 (4.3)	79 (56.8)	22 (15.8)	5 (3.6)	27 (19.4)	139 (100.0)		
부의고향	제주	15 (4.7)	185 (57.8)	38 (11.9)	11 (3.4)	71 (22.2)	320 (100.0)	4	4.672
	제주 이외	8 (6.7)	71 (59.2)	19 (15.8)	5 (4.2)	17 (14.2)	120 (100.0)		
가계소득	50만원 미만	3 (5.2)	33 (56.9)	5 (8.6)	4 (6.9)	13 (22.4)	58 (100.0)	16	18.461
	50만~99만원	3 (3.3)	47 (52.2)	14 (15.6)	4 (4.4)	22 (24.4)	90 (100.0)		
	100만~149만원	9 (6.0)	87 (58.4)	21 (14.1)	4 (2.7)	28 (18.8)	149 (100.0)		
	150만~199만원	1 (1.3)	47 (58.8)	13 (16.3)	2 (2.5)	17 (21.3)	80 (100.0)		
	200만원 이상	7 (11.1)	42 (66.7)	4 (6.3)	2 (3.2)	8 (12.7)	63 (100.0)		
보호자교육정도	대졸	3 (3.4)	58 (65.2)	9 (10.1)	5 (5.6)	14 (15.7)	89 (100.0)	12	8.447
	고졸	14 (5.7)	138 (55.9)	36 (14.6)	6 (2.4)	53 (21.5)	247 (100.0)		
	중졸	4 (5.6)	39 (54.9)	8 (11.3)	3 (4.2)	17 (23.9)	71 (100.0)		
	국졸	2 (6.1)	21 (63.6)	4 (12.1)	2 (6.1)	4 (12.1)	33 (100.0)		
보호자직업	농·어·목축업	5 (4.1)	71 (58.2)	11 (9.0)	6 (4.9)	29 (23.8)	122 (100.0)	16	14.423
	자영업	4 (5.1)	47 (59.5)	14 (17.7)	-	14 (17.7)	79 (100.0)		
	판매·서비스직	9 (7.8)	64 (55.2)	16 (13.8)	4 (3.4)	23 (19.8)	116 (100.0)		
	공무원·교사	1 (1.5)	39 (57.4)	11 (16.2)	4 (5.9)	13 (19.1)	68 (100.0)		
	기타	4 (7.3)	35 (63.6)	5 (9.1)	2 (3.6)	9 (16.4)	55 (100.0)		
전체		23 (5.2)	256 (58.2)	57 (13.0)	16 (3.6)	88 (20.0)	440 (100.0)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2) 학급 청소 활동에 대한 참여도

중학교 학생들의 학급 청소 활동에 대한 협동심과 참여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학급 청소 활동에 나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10.2%, ‘대체로 그렇다’가 57.7%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67.9%)들이 학급 청소 활동에 비교적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학생도 22.0%나 된다는 사실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배경 변인별로 보면 가계소득별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급 청소 활동에 대해 월 가계소득이 50만원 미만인 학생이 74.2%가 긍정적인 응답률을 보임으로써 저소득층 학생이 오히려 학급 청소활동 참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평소 가정에서의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보호자의 교육수준별로는 대졸인 경우는 70.8%가, 고졸은 68.4%가, 중졸은 67.6%가, 국졸은 57.6%가 응답을 하여 학력이 높은 보호자의 학생이 학급 청소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성별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거주지별로는 시 지역보다는 읍·면 지역 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 3) 노트대여 정도

평소 학교에서 친구와의 상부 상조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친구가

〈표17〉 학급 청소활동 참여도

단위 : 명(%)

		정말그렇다	대체그렇	대체로아니	전혀그렇지	모름	계	df	$\chi^2$
성별	남	25 (11.1)	136 (60.4)	38 (16.9)	8 (3.6)	18 (8.0)	225 (100.0)	4	5.246
	여	20 (9.3)	118 (54.9)	36 (16.7)	15 (7.0)	26 (12.1)	215 (100.0)		
거주지역	시	31 (11.1)	155 (55.6)	49 (17.6)	16 (5.7)	28 (10.0)	279 (100.0)	4	1.833
	읍·면	14 (8.7)	99 (61.5)	25 (15.5)	7 (4.3)	16 (9.9)	161 (100.0)		
학년	1학년	14 (10.5)	77 (57.9)	23 (17.3)	7 (5.3)	12 (9.0)	133 (100.0)	8	3.325
	2학년	16 (9.5)	96 (57.1)	26 (15.5)	12 (7.1)	18 (10.7)	168 (100.0)		
	3학년	15 (10.8)	81 (58.3)	25 (18.0)	4 (2.9)	14 (10.1)	139 (100.0)		
부의고향	제주	29 (9.1)	190 (59.4)	56 (17.5)	15 (4.7)	30 (9.4)	320 (100.0)	4	3.545
	제주 이외	16 (13.3)	64 (53.3)	18 (15.0)	8 (6.7)	14 (11.7)	120 (100.0)		
가계소득	50만원 미만	11 (19.0)	32 (55.2)	5 (8.6)	3 (5.2)	7 (12.1)	58 (100.0)	16	37.890 **
	50만~99만원	12 (13.3)	50 (55.6)	22 (24.4)	1 (1.1)	5 (5.6)	90 (100.0)		
	100만~149만원	13 (8.7)	86 (57.7)	25 (16.8)	6 (4.0)	19 (12.8)	149 (100.0)		
	150만~199만원	5 (6.3)	48 (60.0)	17 (21.3)	3 (3.8)	7 (8.8)	80 (100.0)		
	200만원 이상	4 (6.3)	38 (60.3)	5 (7.9)	10 (15.9)	6 (9.5)	63 (100.0)		
보호자교육정도	대출	9 (10.1)	54 (60.7)	15 (16.9)	3 (3.4)	8 (9.0)	89 (100.0)	12	5.995
	고졸	27 (10.9)	142 (57.5)	40 (16.2)	15 (6.1)	23 (9.3)	247 (100.0)		
	중졸	5 (7.0)	43 (60.6)	12 (16.9)	2 (2.8)	9 (12.7)	71 (100.0)		
	국졸	4 (12.1)	15 (45.5)	7 (21.2)	3 (9.1)	4 (12.1)	33 (100.0)		
보호자직업	농·어·목축업	12 (9.8)	79 (64.8)	15 (12.3)	4 (3.3)	12 (9.8)	122 (100.0)	16	19.192
	자영업	9 (11.4)	44 (55.7)	13 (16.5)	7 (8.9)	6 (7.6)	79 (100.0)		
	판매·서비스직	13 (11.2)	62 (53.4)	27 (23.3)	7 (6.0)	7 (6.0)	116 (100.0)		
	공무원·교사	7 (10.3)	42 (61.8)	8 (11.8)	2 (2.9)	9 (13.2)	68 (100.0)		
	기타	4 (7.3)	27 (49.1)	11 (20.0)	3 (5.5)	10 (18.2)	55 (100.0)		
전체		45 (10.2)	254 (57.7)	74 (16.8)	23 (5.2)	44 (10.0)	440 (100.0)		

( \*\* p <.01)



내 노트를 빌려달라고 한다면 잘 빌려주는 편입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23.4%, ‘대체로 그렇다’가 58.0%,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8.2%, ‘전혀 그렇지 않다’가 3.4%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81.4%)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습자료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성별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87.0%로 남학생(76.0%) 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학년별로는 고학년일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친구에 대한 도움 정도

평소 친구의 불행에 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친구가 학교나 가정에서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14.5%, ‘대체로 그렇다’가 51.8%로 나타나 66.3%(남 62.2%, 여 70.7%)의 학생들이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14.1%, ‘전혀 그렇지 않다’가 3.2%, ‘잘 모르겠다’가 16.4%로 나타나 부정적인 응답(17.3%)까지 포함하면 33.7%의 학생들이 평소에 친구에 불행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선행 연구인 신순조의 조사<sup>26)</sup>에서 ‘적극적으로 친구나 이웃을 도와야 한다’고 응답한 85.4%(남 84.3%, 여 74.4%)의 비율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

---

26) 신순조(1980), “국민학교 아동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p.37.

〈표18〉 노트대여 정도

단위 : 명(%)

		정말그렇다	대체로그렇	대체로아니	전혀그렇지	모름	계	df	x <sup>2</sup>
성별	남	53 (23.6)	118 (52.4)	25 (11.1)	11 (4.9)	18 (8.0)	225 (100.0)	4	10.799 *
	여	50 (23.3)	137 (63.7)	11 (5.1)	4 (1.9)	13 (6.0)	215 (100.0)		
거주지역	시	64 (22.9)	162 (58.1)	25 (9.0)	7 (2.5)	21 (7.5)	279 (100.0)	4	2.702
	읍·면	39 (24.2)	93 (57.8)	11 (6.8)	8 (5.0)	10 (6.2)	161 (100.0)		
학년	1학년	35 (26.3)	71 (53.4)	10 (7.5)	8 (6.0)	9 (6.8)	133 (100.0)	8	5.916
	2학년	40 (23.8)	98 (58.3)	14 (8.3)	4 (2.4)	12 (7.1)	168 (100.0)		
	3학년	28 (20.1)	86 (61.9)	12 (8.6)	3 (2.2)	10 (7.2)	139 (100.0)		
부의고향	제주	68 (21.3)	189 (59.1)	29 (9.1)	12 (3.8)	22 (6.9)	320 (100.0)	4	4.146
	제주 이외	35 (29.2)	66 (55.0)	7 (5.8)	3 (2.5)	9 (7.5)	120 (100.0)		
가계소득	50만원 미만	15 (25.9)	31 (53.4)	3 (5.2)	5 (8.6)	4 (6.9)	58 (100.0)	16	15.208
	50만~99만원	19 (21.1)	51 (56.7)	9 (10.0)	4 (4.4)	7 (7.8)	90 (100.0)		
	100만~149만원	41 (27.5)	83 (55.7)	14 (9.4)	2 (1.3)	9 (6.0)	149 (100.0)		
	150만~199만원	15 (18.8)	54 (67.5)	3 (3.8)	2 (2.5)	6 (7.5)	80 (100.0)		
	200만원 이상	13 (20.6)	36 (57.1)	7 (11.1)	2 (3.2)	5 (7.9)	63 (100.0)		
보호자교육정도	대졸	23 (25.8)	48 (53.9)	10 (11.2)	1 (1.1)	7 (7.9)	89 (100.0)	12	16.973
	고졸	49 (19.8)	153 (61.9)	17 (6.9)	8 (3.2)	20 (8.1)	247 (100.0)		
	중졸	23 (32.4)	39 (54.9)	4 (5.6)	3 (4.2)	2 (2.8)	71 (100.0)		
	국졸	8 (24.2)	15 (45.5)	5 (15.2)	3 (9.1)	2 (6.1)	33 (100.0)		
보호자직업	농·어·목축업	28 (23.0)	69 (56.6)	9 (7.4)	7 (5.7)	9 (7.4)	122 (100.0)	16	9.730
	자영업	15 (19.0)	47 (59.5)	7 (8.9)	3 (3.8)	7 (8.9)	79 (100.0)		
	관·매·서비스직	29 (25.0)	67 (57.8)	9 (7.8)	3 (2.6)	8 (6.9)	116 (100.0)		
	공무원·교사	14 (20.6)	44 (64.7)	7 (10.3)	1 (1.5)	2 (2.9)	68 (100.0)		
	기타	17 (30.9)	28 (50.9)	4 (7.3)	1 (1.8)	5 (9.1)	55 (100.0)		
전체		103 (23.4)	255 (58.0)	36 (8.2)	15 (3.4)	31 (7.0)	440 (100.0)		

(\* p <.05)

〈표19〉 친구에 대한 도움 정도

단위 : 명(%)

		정말그렇다	대체로그렇	대체로아니	전혀그렇지	모르겠다	계	d.f	$\chi^2$
성별	남	23 (10.2)	117 (52.0)	40 (17.8)	10 (4.4)	35 (15.6)	225 (100.0)	4	12.853 *
	여	41 (19.1)	111 (51.6)	22 (10.2)	4 (1.9)	37 (17.2)	215 (100.0)		
거주지역	시	42 (15.1)	150 (53.8)	42 (15.1)	5 (1.8)	40 (14.3)	279 (100.0)	4	7.736
	읍·면	22 (13.7)	78 (48.4)	20 (12.4)	9 (5.6)	32 (19.9)	161 (100.0)		
학년	1학년	26 (19.5)	68 (51.1)	14 (10.5)	5 (3.8)	20 (15.0)	133 (100.0)	8	7.472
	2학년	24 (14.3)	83 (49.4)	27 (16.1)	4 (2.4)	30 (17.9)	168 (100.0)		
	3학년	14 (10.1)	77 (55.4)	21 (15.1)	5 (3.6)	22 (15.8)	139 (100.0)		
부의고향	제주	38 (11.9)	170 (53.1)	45 (14.1)	10 (3.1)	57 (17.8)	320 (100.0)	4	7.657
	제주 이외	26 (21.7)	58 (48.3)	17 (14.2)	4 (3.3)	15 (12.5)	120 (100.0)		
가계소득	50만원 미만	12 (20.7)	17 (29.3)	10 (17.2)	6 (10.3)	13 (22.4)	58 (100.0)	16	36.754 **
	50만~99만원	11 (12.2)	48 (53.3)	13 (14.4)	2 (2.2)	16 (17.8)	90 (100.0)		
	100만~149만원	20 (13.4)	84 (56.4)	13 (8.7)	3 (2.0)	29 (19.5)	149 (100.0)		
	150만~199만원	9 (11.3)	44 (55.0)	16 (20.0)	-	11 (13.8)	80 (100.0)		
	200만원 이상	12 (19.0)	35 (55.6)	10 (15.9)	3 (4.8)	3 (4.8)	63 (100.0)		
보호자교육정도	대출	16 (18.0)	40 (44.9)	22 (24.7)	2 (2.2)	9 (10.1)	89 (100.0)	12	34.478 **
	고졸	38 (15.4)	137 (55.5)	24 (9.7)	6 (2.4)	42 (17.0)	247 (100.0)		
	중졸	5 (7.0)	33 (46.5)	12 (16.9)	2 (2.8)	19 (26.8)	71 (100.0)		
	국졸	5 (15.2)	18 (54.5)	4 (12.1)	4 (12.1)	2 (6.1)	33 (100.0)		
보호자직업	농·어·목축업	14 (11.5)	60 (49.2)	12 (9.8)	6 (4.9)	30 (24.6)	122 (100.0)	16	20.664
	자영업	13 (16.5)	45 (57.0)	13 (16.5)	2 (2.5)	6 (7.6)	79 (100.0)		
	판매·서비스직	22 (19.0)	61 (52.6)	17 (14.7)	2 (1.7)	14 (12.1)	116 (100.0)		
	공무원·교사	8 (11.8)	34 (50.0)	13 (19.1)	1 (1.5)	12 (17.6)	68 (100.0)		
	기타	7 (12.7)	28 (50.9)	7 (12.7)	3 (5.5)	10 (18.2)	55 (100.0)		
전체		64 (14.5)	228 (51.8)	62 (14.1)	14 (3.2)	72 (16.4)	440 (100.0)		

(\* p <.05, \*\* p <.01)

이고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에 있어서도 어려운 이웃을 서로 돕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배경 변인별로 보면 성별로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정말 그렇다’가 여학생이 19.1%, 남학생은 10.2%의 응답을 보였다. 또한 여학생은 70.7%가 긍정적 반응을 보인데 반해 남학생은 62.2%가 응답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부정적 응답은 남학생이 22.2%로 여학생(12.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계소득별로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계 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는 74.6%, 100만원~149만원은 69.8%, 150만원~199만원은 66.3%, 50만원~99만원은 65.5%, 50만원 미만은 50.0%로 가계 소득 200만원 이상의 가정에 있는 학생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호자 교육수준별로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졸 보호자의 학생이 70.9%, 국졸 보호자의 학생은 69.7%, 대졸 보호자의 학생은 62.9%, 중졸 보호자의 학생은 53.5%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고졸 보호자의 학생이 비교적 높은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한 소득층은 10.3%의 저소득층 학생이었는데, 이것은 최저 생계비 보장이 안된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비록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거주지역별로는 시 지역 학생이 68.9%로 읍·면 지역 학생(62.1%)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학년별로는 1학년 학생이 70.6%로 3학년(65.5%)이나 2학년(63.7%)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학급협의회 의 준수 정도

평소 학급협의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을 어느 정도 준수하느냐 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책임성과 준법 정신을 알 수 있는 척도이다. 이에 따라 “학급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잘 지키는 편입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5.0%, ‘대체로 그렇다’가 37.3%로 나타나 42.3%(남 38.2%, 여 46.5%)의 학생들이 학급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잘 지키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34.8%, ‘전혀 그렇지 않다’가 9.5%, ‘잘 모르겠다’가 13.4%로 나타나 유보적인 응답(44.3%)까지 포함하면 57.7%의 학생들이 학급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잘 지키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성별로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정말 그렇다’가 남학생이 6.2%, 여학생은 3.7%의 응답을 보였다. 또한 남학생은 38.2%가 긍정적 반응을 보인데 반해 여학생은 46.5%가 응답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부정적 응답은 남학생이 49.9%로 여학생(38.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거주지역별로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시 지역 학생이 47.4%로 읍·면 지역 학생(33.6%)보다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읍·면 지역 학생들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36.0%, ‘전혀 그렇지 않다’가 12.4%로 나타나 48.4%의 학생들이 학급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잘 지키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수치는 시 지역 학생들이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34.1%, ‘전혀 그렇지 않다’가 7.9%로 나타나 42.0%와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학년별로는 1학년 학생이 47.4%로 3학년(41.7%)이나 2학년(38.7%)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호자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보호자의 학생이 45.0%의 응답률을 보여, 고졸 42.1%, 중졸 43.7%, 국졸 33.4%에 비하여 학급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상대적으로 잘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20〉 학급협회의 준수 정도

단위 : 명 ( % )

		정말그렇다	대체로그렇	대체로아니	전혀그렇지	모르겠다	계	d.f	x <sup>2</sup>
성별	남	14 (6.2)	72 (32.0)	85 (37.8)	27 (12.0)	27 (12.0)	225 (100.0)	4	9.594 *
	여	8 (3.7)	92 (42.8)	68 (31.6)	15 (7.0)	32 (14.9)	215 (100.0)		
거주지역	시	18 (6.5)	114 (40.9)	95 (34.1)	22 (7.9)	30 (10.8)	279 (100.0)	4	12.175 *
	읍·면	4 (2.5)	50 (31.1)	58 (36.0)	20 (12.4)	29 (18.0)	161 (100.0)		
학년	1학년	7 (5.3)	56 (42.1)	42 (31.6)	12 (9.0)	16 (12.0)	133 (100.0)	8	5.856
	2학년	10 (6.0)	55 (32.7)	66 (39.3)	17 (10.1)	20 (11.9)	168 (100.0)		
	3학년	5 (3.6)	53 (38.1)	45 (32.4)	13 (9.4)	23 (16.5)	139 (100.0)		
부의고향	제주	14 (4.4)	125 (39.1)	106 (33.1)	28 (8.8)	47 (14.7)	320 (100.0)	4	5.049
	제주 이외	8 (6.7)	39 (32.5)	47 (39.2)	14 (11.7)	12 (10.0)	120 (100.0)		
가계소득	50만원 미만	4 (6.9)	24 (41.4)	17 (29.3)	4 (6.9)	9 (15.5)	58 (100.0)	16	15.260
	50만~99만원	2 (2.2)	38 (42.2)	23 (25.6)	11 (12.2)	16 (17.8)	90 (100.0)		
	100만~149만원	9 (6.0)	54 (36.2)	55 (36.9)	11 (7.4)	20 (13.4)	149 (100.0)		
	150만~199만원	3 (3.8)	25 (31.3)	34 (42.5)	11 (13.8)	7 (8.8)	80 (100.0)		
	200만원 이상	4 (6.3)	23 (36.5)	24 (38.1)	5 (7.9)	7 (11.1)	63 (100.0)		
보호자교육정도	대졸	7 (7.9)	33 (37.1)	36 (40.4)	6 (6.7)	7 (7.9)	89 (100.0)	12	17.767
	고졸	12 (4.9)	92 (37.2)	85 (34.4)	23 (9.3)	35 (14.2)	247 (100.0)		
	중졸	1 (1.4)	30 (42.3)	23 (32.4)	5 (7.0)	12 (16.9)	71 (100.0)		
	국졸	2 (6.1)	9 (27.3)	9 (27.3)	8 (24.2)	5 (15.2)	33 (100.0)		
보호자직업	농·어·목축업	4 (3.3)	40 (32.8)	44 (36.1)	11 (9.0)	23 (18.9)	122 (100.0)	16	16.925
	자영업	3 (3.8)	34 (43.0)	31 (39.2)	9 (11.4)	2 (2.5)	79 (100.0)		
	판매·서비스직	9 (7.8)	43 (37.1)	39 (33.6)	8 (6.9)	17 (14.7)	116 (100.0)		
	공무원·교사	3 (4.4)	27 (39.7)	20 (29.4)	8 (11.8)	10 (14.7)	68 (100.0)		
	기타	3 (5.5)	20 (36.4)	19 (34.5)	6 (10.9)	7 (12.7)	55 (100.0)		
전체	22 (5.0)	164 (37.3)	153 (34.8)	42 (9.5)	59 (13.4)	440 (100.0)			

( \* p < .05 )

## 6) 자원봉사 활동 경험

자원봉사활동이란 물질적인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개인이나 사회를 위해 돕는 사람들의 다양한 행위를 의미한다. 자원봉사활동은 체험학습을 통해 개인적 만족감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의 기회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기회를 갖는다.<sup>27)</sup>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이기주의적 태도를 극복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길러준다. 이런 의미에서 “중학교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자원 봉사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문항을 설정하였다.

〈표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79.1%,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20.9%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남 79.6%, 여 78.2%)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학생도 20.9%(남 20.4%, 여 21.4%)로 나타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본 경험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비록 통계처리에서는 제외시켰지만 ‘적합한 봉사활동이 없어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자도 상당수 있었다.

배경 변인별로 보면 학년별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학년 학생은 응답률이 가장 높은 86.3%, 1학년은 76.7%, 3학년은 72.7% 순으로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2학년 학생이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많은 이유로는 고등학교 입학시험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3학년보다는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에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비전 2002 : 새학교문화창조」에서 강조하는 인성교육 차원에서 중·고등학생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체험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거주지역별로는 시 지역 학생

---

27) 현외성(1996), “중고등학생 자원봉사활동”, 유평 출판사, p.14.

이 81.7%로 나타나 읍·면 지역 학생(74.5%)보다 상대적으로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계소득별로는 150만원이상 소득자의 학생이 봉사활동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7) 공중 도덕 준수

공중 도덕의 준수를 통해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배양할 수 있다는 면에서 “평소에 공중 도덕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4.5%, ‘대체로 그렇다’가 59.1%로 나타나 63.6%(남 60.9%, 여 66.5%)의 학생들이 평소에 공중 도덕을 지키고 있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23.6%, ‘전혀 그렇지 않다’가 3.6%로 평소에 공중 도덕은 잘 지키지 않는 학생이 27.2%로 나타나고 있다.

배경 변인별로 보면 보호자 교육수준별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호자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보호자의 학생이 67.5%의 응답률을 보여, 고졸(63.9%)이나 중졸(59.2%) 또는 국졸 보호자(60.6%)에 비하여 평소에 공중 도덕은 비교적 잘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반면에 국졸 보호자의 학생(36.3%)은 고졸(27.5%)이나 중졸(25.3%) 또는 대졸 보호자(24.7%)에 비하여 공중 도덕을 비교적 잘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성별로는 공중 도덕을 비교적 지키고 있다는 응답이 남학생 60.9%, 여학생 66.5%로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공중 도덕을 비교적 지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거주지별로는 시 지역 학생이 66.0%로 읍·면 지역 학생(59.0%)보다 상대적으로 공중 도덕을 잘 지키는 편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3학년 학생이 71.2%로 1학년(63.9%)이나 2학년(57.2%)보다 상대적으로 공중 도덕을 잘 지키는 편으로 나타났다.



〈표21〉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 경험

단위 : 명(%)

		있다	없다	계	df	$\chi^2$
성별	남	179 (79.6)	46 (20.4)	225 (100.0)	1	0.060
	여	169 (78.6)	46 (21.4)	215 (100.0)		
거주지역	시	228 (81.7)	51 (18.3)	279 (100.0)	1	3.188
	읍·면	120 (74.5)	41 (25.5)	161 (100.0)		
학년	1학년	102 (76.7)	31 (23.3)	133 (100.0)	2	9.231 *
	2학년	145 (86.3)	23 (13.7)	168 (100.0)		
	3학년	101 (72.7)	38 (27.3)	139 (100.0)		
부의고향	제주	253 (79.1)	67 (20.9)	320 (100.0)	1	0.001
	제주 이외	95 (79.2)	25 (20.8)	120 (100.0)		
가계소득	50만원 미만	41 (70.7)	17 (29.3)	58 (100.0)	4	6.637
	50만~99만원	67 (74.4)	23 (25.6)	90 (100.0)		
	100만~149만원	119 (79.9)	30 (20.1)	149 (100.0)		
	150만~199만원	69 (86.3)	11 (13.8)	80 (100.0)		
	200만원 이상	52 (82.5)	11 (17.5)	63 (100.0)		
보호자교육정도	대졸	73 (82.0)	16 (18.0)	89 (100.0)	3	8.923 *
	고졸	203 (82.2)	44 (17.8)	247 (100.0)		
	중졸	51 (71.8)	20 (28.2)	71 (100.0)		
	국졸	21 (63.6)	12 (36.4)	33 (100.0)		
보호자직업	농·어·목축업	86 (70.5)	36 (29.5)	122 (100.0)	4	8.200
	자영업	63 (79.7)	16 (20.3)	79 (100.0)		
	판매·서비스직	98 (84.5)	18 (15.5)	116 (100.0)		
	공무원·교사	56 (82.4)	12 (17.6)	68 (100.0)		
	기타	45 (81.8)	10 (18.2)	55 (100.0)		
전체		348 (79.1)	92 (20.9)	440 (100.0)		

(\* p <.05)

〈표22〉 공중도덕 준수

단위 : 명(%)

		정말그렇다	대체로그렇	대체로아니	전혀그렇지	모르겠다	계	df	x <sup>2</sup>
성별	남	15 (6.7)	122 (54.2)	56 (24.9)	10 (4.4)	22 (9.8)	225 (100.0)	4	7.777
	여	5 (2.3)	138 (64.2)	48 (22.3)	6 (2.8)	18 (8.4)	215 (100.0)		
거주지역	시	18 (6.5)	166 (59.5)	65 (23.3)	10 (3.6)	20 (7.2)	279 (100.0)	4	9.259
	읍·면	2 (1.2)	94 (58.4)	39 (24.2)	6 (3.7)	20 (12.4)	161 (100.0)		
학년	1학년	8 (6.0)	77 (57.9)	33 (24.8)	5 (3.8)	10 (7.5)	133 (100.0)	8	9.021
	2학년	6 (3.6)	90 (53.6)	48 (28.6)	7 (4.2)	17 (10.1)	168 (100.0)		
	3학년	6 (4.3)	93 (66.9)	23 (16.5)	4 (2.9)	13 (9.4)	139 (100.0)		
부의고향	제주	15 (4.7)	187 (58.4)	78 (24.4)	10 (3.1)	30 (9.4)	320 (100.0)	4	1.356
	제주 이외	5 (4.2)	73 (60.8)	26 (21.7)	6 (5.0)	10 (8.3)	120 (100.0)		
가계소득	50만원 미만	3 (5.2)	27 (46.6)	16 (27.6)	4 (6.9)	8 (13.8)	58 (100.0)	16	19.654
	50만~99만원	3 (3.3)	59 (65.6)	14 (15.6)	3 (3.3)	11 (12.2)	90 (100.0)		
	100만~149만원	9 (6.0)	94 (63.1)	30 (20.1)	3 (2.0)	13 (8.7)	149 (100.0)		
	150만~199만원	3 (3.8)	42 (52.5)	26 (32.5)	3 (3.8)	6 (7.5)	80 (100.0)		
	200만원 이상	2 (3.2)	38 (60.3)	18 (28.6)	3 (4.8)	2 (3.2)	63 (100.0)		
보호자교육정도	대졸	11 (12.4)	49 (55.1)	18 (20.2)	4 (4.5)	7 (7.9)	89 (100.0)	12	33.923 **
	고졸	9 (3.6)	149 (60.3)	64 (25.9)	4 (1.6)	21 (8.5)	247 (100.0)		
	중졸	-	42 (59.2)	14 (19.7)	4 (5.6)	11 (15.5)	71 (100.0)		
	국졸	-	20 (60.6)	8 (24.2)	4 (12.1)	1 (3.0)	33 (100.0)		
보호자직업	농·어·목축업	6 (4.9)	70 (57.4)	28 (23.0)	5 (4.1)	13 (10.7)	122 (100.0)	16	11.042
	자영업	2 (2.5)	47 (59.5)	21 (26.6)	4 (5.1)	5 (6.3)	79 (100.0)		
	판매·서비스직	6 (5.2)	68 (58.6)	26 (22.4)	4 (3.4)	12 (10.3)	116 (100.0)		
	공무원·교사	4 (5.9)	47 (69.1)	10 (14.7)	2 (2.9)	5 (7.4)	68 (100.0)		
	기타	2 (3.6)	28 (50.9)	19 (34.5)	1 (1.8)	5 (9.1)	55 (100.0)		
전체		20 (4.5)	260 (59.1)	104 (23.6)	16 (3.6)	40 (9.1)	440 (100.0)		

( \*\* p <.01)

## 8) 환경보전 의식

중학교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간접적인 도구로서 환경보전 의식을 알아보았다. 즉 “간식을 먹고 난 후에 과자봉지나 쓰레기는 휴지통이나 지정된 장소에 잘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정말 그렇다’라고 한 학생이 11.6%, ‘대체로 그렇다’가 56.6%로 나타나 68.2%(남 64.9%, 여 71.6%)의 학생들이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20.0%, ‘전혀 그렇지 않다’가 5.5%로 나타나, 25.5%의 학생들이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 변인별로 보면, 성별로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학생은 71.6%가 과자봉지나 쓰레기를 휴지통이나 지정된 장소에 처리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남학생(64.9%)보다 환경보전 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다’의 항목에는 남학생이 8.4%가 응답하여 여학생(2.3%)보다 환경보전 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록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거주지역별로는 시 지역 학생(70.6%)이 읍·면 지역 학생(64.0%)보다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았다.

학년별로는 3학년이 73.4%로 1학년(70.7%)이나 2학년(61.9%)보다도 상대적으로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고향인 부의 학생은 70.4%로 다른 지방이 고향인 부의 학생(62.5%)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보호자 직업별로는 공무원·교사(35.3%)가 79.4%의 반응을 보여 농·어·목축업(69.6%)이나 자영업(63.3%)보다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23〉 환경보전 의식

단위 : 명( % )

		정말그렇다	대체로그렇	대체로아니	전혀그렇지	모르겠다	계	d.f	$\chi^2$
성별	남	29 (12.9)	117 (52.0)	43 (19.1)	19 (8.4)	17 (7.6)	225 (100.0)	4	11.141 *
	여	22 (10.2)	132 (61.4)	45 (20.9)	5 (2.3)	11 (5.1)	215 (100.0)		
거주지역	시	34 (12.2)	163 (58.4)	54 (19.4)	12 (4.3)	16 (5.7)	279 (100.0)	4	3.178
	읍·면	17 (10.6)	86 (53.4)	34 (21.1)	12 (7.5)	12 (7.5)	161 (100.0)		
학년	1학년	19 (14.3)	75 (56.4)	25 (18.8)	7 (5.3)	7 (5.3)	133 (100.0)	8	10.423
	2학년	18 (10.7)	86 (51.2)	39 (23.2)	14 (8.3)	11 (6.5)	168 (100.0)		
	3학년	14 (10.1)	88 (63.3)	24 (17.3)	3 (2.2)	10 (7.2)	139 (100.0)		
부의고향	제주	37 (11.6)	188 (58.8)	56 (17.5)	18 (5.6)	21 (6.6)	320 (100.0)	4	4.769
	제주 이외	14 (11.7)	61 (50.8)	32 (26.7)	6 (5.0)	7 (5.8)	120 (100.0)		
가계소득	50만원 미만	10 (17.2)	32 (55.2)	9 (15.5)	3 (5.2)	4 (6.9)	58 (100.0)	16	13.181
	50만~99만원	9 (10.0)	53 (58.9)	20 (22.2)	2 (2.2)	6 (6.7)	90 (100.0)		
	100만~149만원	18 (12.1)	85 (57.0)	27 (18.1)	9 (6.0)	10 (6.7)	149 (100.0)		
	150만~199만원	8 (10.0)	50 (62.5)	16 (20.0)	3 (3.8)	3 (3.8)	80 (100.0)		
	200만원 이상	6 (9.5)	29 (46.0)	16 (25.4)	7 (11.1)	5 (7.9)	63 (100.0)		
보호자교육정도	대출	15 (16.9)	46 (51.7)	19 (21.3)	6 (6.7)	3 (3.4)	89 (100.0)	12	9.140
	고졸	29 (11.7)	140 (56.7)	46 (18.6)	15 (6.1)	17 (6.9)	247 (100.0)		
	중졸	5 (7.0)	42 (59.2)	16 (22.5)	2 (2.8)	6 (8.5)	71 (100.0)		
	국졸	2 (6.1)	21 (63.6)	7 (21.2)	1 (3.0)	2 (6.1)	33 (100.0)		
보호자직업	농·어·목축업	12 (9.8)	73 (59.8)	23 (18.9)	3 (2.5)	11 (9.0)	122 (100.0)	16	25.323
	자영업	11 (13.9)	39 (49.4)	16 (20.3)	7 (8.9)	6 (7.6)	79 (100.0)		
	판매·서비스직	10 (8.6)	63 (54.3)	25 (21.6)	10 (8.6)	8 (6.9)	116 (100.0)		
	공무원·교사	6 (8.8)	48 (70.6)	10 (14.7)	3 (4.4)	1 (1.5)	68 (100.0)		
	기타	12 (21.8)	26 (47.3)	14 (25.5)	1 (1.8)	2 (3.6)	55 (100.0)		
전체		51 (11.6)	249 (56.6)	88 (20.0)	24 (5.5)	28 (6.4)	440 (100.0)		

( \* p < .05 )

## I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중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을 조사 연구해 봄으로써 앞으로 학생들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교육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학교 전인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공동체의식의 개념 정의와 기존 연구를 분석하여 제주도 중학생들의 의식 구조를 내용 차원에서 제주인의 가치관, 심리적 동일성, 협동성 영역으로 분류하고, 이들 영역을 다시 제주인의 가치관에서는 제주정신, 인생 목표, 미래 사회의 자원, 성공의 요인, 방언의 사용으로, 심리적 동일성에서는 역사와 전통문화, 정체성, 소속감, 친근감, 일체감으로, 협동성에서는 상부상조 정신, 봉사정신, 준법 정신, 환경보전 의식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제주도내 중학교 18학급 약 660명을 대상으로 표집 조사 분석하였으며, 연구에 사용된 배경 변인은 성별, 거주지별, 학년별, 부의 소득수준별, 부의 교육정도별, 보호자 직업별로 구분하였다. 배경 변인별 검증은 카이자승( $\chi^2$ ) 검증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나타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들의 가치관 면에서 보면, 제주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정신으로 37.0 %의 학생들이 '강한 생활력'을, 다음으로는 '부지런하다' (23.2 %), '검소하다' (2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향은 여학생(46.0%)이 남학생(28.4%)보다 많았고, '검소하다'에는 남학생(31.6%)이 여학생(14.0%)보다 많게 나타났으며, 거주지별로는 시 지역(37.6%)은 '강한 생활력'에, 읍·면 지역(31.7%)은 '부지런하다'에 더 높은 응답을 하고 있다. 제주도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되는 것으로 '변화에 보수적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36.6%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들이 생각하는 인생목표로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70.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

학생(76.3%)이 남학생(64.0%)보다, 학년별로는 2학년(75.6%)이 3학년(72.7%)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는 정보(22.5%)나 이웃(6.6%)보다는 가족(62.3%)을 들고 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은 가족을, 3학년은 정보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적 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 실력(62.0%)을 첫째로 꼽고 있었으며, 제주사람들의 마음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로는 돌하르방(32.5%), 삼무정신(31.83%), 조남정신(28.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은 무응답까지 포함하여 50.0%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학년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심리적 동일성의 면에서 보면, 상당수의 학생들(64.8%)이 제주인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으며, 제주사투리의 사용 빈도와 축구 경기에서 보편은 학생들의 소속감 및 일체감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학교 학생들에 대하여 한가족이라는 느낌이 드느냐는 질문에는 40.9%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는데, 부의 고향별로는 제주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외지인에 대한 거리감은 76.6%가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협동성의 차원에서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63.4%)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학급 청소 활동에 대한 협동성과 참여도는 저소득층(월 50만원 미만) 학생이 보다 긍정적인 응답(74.2%)을 보이고 있다. 친구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상부상조 태도는 여학생(70.7%)이 남학생(62.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계소득이 높은 가정(200만원 이상)의 학생(74.6%)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또한 학급협의회를 통해 본 책임감 및 준법정신은 유보적인 응답까지 포함하면 57.7%가 잘 지키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남학생(38.2%)보다는 여학생(46.5%)이, 읍·면지역(33.6%)보다는 시 지역학생(47.4%)이 비교적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79.1%)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경험이 있었고, 학년별로는 2학년이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공중도덕은 대졸 보호자의 학생이 67.5%로 가장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보전 의식은 여학생(71.6%)이 남학생

(64.9%)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도내 중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으며, 특히 성별로는 여학생이 더 안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나 소속 학교에 대한 일체감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 및 준법정신이 높지 않게 나타난 것은 학교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도의 역사와 전통 문화에 대한 지역화 학습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계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이 개인적 성취감을 맛보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민주적 절차에 따른 책임성과 준법 정신의 내면화 교육이 필요하며, 또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일제 특별활동이나 특기·적성교육에서도 학생들에게 학급협의회, 자원봉사, 진정, 캠페인 등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넷째, 중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낮게 나타난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 참 고 문 헌

- 고석희(1998), “제주도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가치관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공동체의식개혁 국민운동 제주도협의회(1996), 「제주공동체」 창간호.  
\_\_\_\_\_ (1997), 「제주공동체」 제2집.
- 공보처(1995), 광복 50주년 한민족 공동체 의식조사연구.
- 교육부(1998), 「교육월보」 통권 193호.
- 김경동(1981),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 김대환(1994), 「한국인의 자기 발견」, 김영사.
- 김성미(1988),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시민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섭 외(1994), “공동체의식과 시민운동”, 「아산재단 연구보고서」 제3집,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김정금(1998), “학교가 아이들의 힘을 믿어주는 공동체였으면 한다”, 「교육개발」 통권 116호, 한국교육개발원.
- 김항원 외(1997), “제주인의 의식과 제주정신의 정립”, 「동아시아연구논총」 제7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 노상준(1997), “인간의 본성을 바람직하게 키워주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련의 교육”, 「교육제주」 87호, 제주도교육청.
- 박경구(1995), “공동주택단지의 주민공동체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
- 송덕희(1994), “국민학교 교사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 복(1995), 「세계화 전략으로서의 공동체 재건」, 공보처.



- 신순조(1980), “국민학교 아동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정현 외(1994), 「통일시대의 민주시민교육론」, 탐구당.
- 신행철(1997), “공동체를 추구하는 뜻은 . . .”, 「제주공동체」 제2집, 공동체의식개혁 국민운동 제주도협의회.
- 양 춘 외(1991), 「사회학개론」, 진성사.
- 이인규(1996),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 교육의 방안”, 「사회와 교육」 제23집, 제주도민의회조사연구.
- 제주발전연구원, 「21세기 제주 제주인 도민의식조사 보고서」 (1997).
- 조문부(1996), “의식개혁과 공동체 의식”, 「제주 공동체」 창간호, 공동체 의식개혁국민운동제주도협의회,
- 진덕규(1993), 「현대정치학」, 학문과 사상사.
- 최재석(1980),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개문사.
- 한국교육개발원(1998), 「교육개발」 통권 116호.
- 현외성(1996), 「중고등학생 자원봉사활동」, 유희출판사.

<Abstract>

## **A Study on Community Conscious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Cheju Province**

Lee, Goang-Yong

Social Studie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an, Seok-Ji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both to present basic materials needed for school education to enhance middle school students community consciousness in the future and to seek a direction for the education of the whole man through research and study of community conscious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Cheju province.

For this purpose, this thesis defines the concept of community consciousness, analyzes established research and further researches what consciousness middle school students in Cheju province have in terms of Cheju citizens sense of value, psychological identity and cooperative attitud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Considering students' sense of value in being Cheju citizens, 37.0% of the students cite a strong capacity for living as Cheju people's spirit worthy of being proud of, 23.2% of the students cite thrift. As 36.6%, the largest number of the students cite a conservative tendency to change as a weakness of Cheju citizens and the largest percentage, 70.0%, of the students say that their life goal is to lead their lives by doing what they want to do. What they think to be most helpful in

leading their future lives is family (62.3%) rather than information(22.5%) or neighbors(6.6%). They count capability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social success and they count traditional culture standing for Cheju citizens' minds in terms of Tolharubang (a stone statue shaped like a grandfather : 32.5%), the spirit of Sammu(the lack of thieves, beggars and gates ; 31.83%), and the c'pnang spirit(thrifty spirit: 28.2%). Besides, it is to be noticed that the younger the students are, the more concern they show about traditional culture.

In terms of psychological identity, a large number of the students live their lives with thinking of themselves as Cheju people and they show their relatively higher sense of belonging and identity in the frequent use of Cheju dialect and the soccer games. However, 40.9% of the students give a negative response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y have family feelings about the other students in the same school and 76.6% students say that they feel little distance from mainlanders.

Most of the students(63.4%) show a positive response to the item of cooperative attitude. The students of lower income class(below 0.5 million won per month) show more positive response to the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in classroom cleaning. Girl students(70.7%) show higher positive response than male students(62.2%) in the attitude of mutual aid between friends. It is revealed that girl students(46.5%) rather than male students(38.2%) and students in city areas(47.4%) rather than those in town and county areas(33.6%) observe details decided in class meetings relatively well. Most of the students(79.1%) have experience in volunteer service work and second graders show relatively high participation in it. The students whose parents graduated from colleges(67.5%) are seen to observe public morality best, when considering their parent's education experience and girl students(71.6%) show higher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consciousness than male students(64.9%)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 that middle school students in Cheju province have comparatively high community consciousness and that girl students have more favorable attitudes than male students. It presents a direction for school education to head for that the students have relatively low concern about traditional culture, low identity toward their school and low social responsibility and

law-abiding spirit. Therefore, this thesis suggests several proposals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 education on the history and traditional culture of Cheju province should be conducted systematically in both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Second, various humanity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enable students to enjoy personal achievements and to become humane people who understand and help poor and troubled neighbors.

Third, there should be education for students to internalize responsibility and law-abiding spirit by democratic procedures, and various volunteer service work programs such as all day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class meeting, volunteer service work and campaigns for the purpose of the education of special ability and aptitude, which students can join voluntarily, should be developed as a motive to enhance community consciousness.

Fourth, systematic follow-up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in order to inquire into why male middle school students show lower community consciousness than girls students.

<부 록>

## 질 문 지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학생 여러분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기초 자료를 파악하여 학교 교육에 유익한 자료를 얻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지는 시험이 아니며, 학문적 목적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빠짐없이 성실하게 각 문항에 대하여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9 9 8. 1 2.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이 광 용

※. 다음 문항에 대하여 해당하는 번호에 V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은?

(1) 남

(2) 여

2.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곳은?

(1) 시 지역

(2) 읍·면 지역

3. 현재 본인의 학년은?

(1) 1 학년

(2) 2 학년

(3) 3 학년

4. 아버지의 고향은?

(1) 제주도

(2) 제주도 이외 지역

5. 여러분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 (1) 50만원 미만                      (2) 50만원 ~ 99만원                      (3) 100만원 ~ 149만원  
(4) 150만원 ~ 199만원              (5) 200만원 이상

6. 보호자의 교육 정도는?

- (1) 대졸                                      (2) 고졸  
(3) 중졸                                      (4) 국졸

7. 보호자의 직업은?

- (1) 농업, 어업, 목축업                      (2) 자영업  
(3) 판매·서비스직(숙박, 식당, 이·미용업, 외판원, 식당 종업원, 주점 등 )  
(4) 공무원, 교사                              (5) 기 타 (                              )

8. 다음 중 제주도 사람들이 다른 지방의 사람들에게 자랑할만한 가장 바람직한 정신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부지런함                              (2) 검소함(절약)  
(3) 예의바름                              (4) 생활력이 강함                      (5) 기 타 (                              )

9. 다음 중 제주도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무뚝뚝함                              (2) 이기적임  
(3) 변화에 보수적임                      (4) 사치 풍조                      (5) 기 타 (                              )

10. 사람이 살아가는 목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표와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1)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  
(2)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  
(3)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  
(4) 지위와 명예를 높이는 것  
(5) 기 타 (                              )

11.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가족                                      (2) 이웃(지역 사회)  
(3) 정보                                      (4) 국가                              (5) 기 타 (                              )



(2) 그렇지 않다 (이유를 간단히 적어보세요.) :

20. 나는 평소에 협동심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 (1) 정말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대체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5) 잘 모르겠다.

21. 학급 청소 활동에 나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생각합니까?

- (1) 정말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대체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5) 잘 모르겠다.

22. 친구가 내 노트를 빌려달라고 한다면 잘 빌려주는 편입니까?

- (1) 정말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대체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5) 잘 모르겠다.

23. 친구가 학교나 가정에서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정말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대체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5) 잘 모르겠다.

24. 학급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잘 지키는 편입니까?

- (1) 정말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대체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5) 잘 모르겠다.

25. 중학교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26. 평소에 공중 도덕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정말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대체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5) 잘 모르겠다

27. 간식을 먹고 난 후에 과자봉지나 쓰레기는 휴지통이나 지정된 장소에 잘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정말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대체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5) 잘 모르겠다.